

INSS 연구보고서 2019-10

2019 | INSS Research Report

중국인민해방군 현대화에 관한 연구

박병광

INSS 연구보고서 2019-10 | 중국인민해방군 현대화에 관한 연구 | 박병광
공정출판

2019 |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19-10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관한 연구

박병광 bkpark@inss.re.kr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 02-6191-1000 Fax.02-6191-1111 www.inss.re.kr



ISBN 979-11-89781-16-3
ISBN 979-11-89781-05-7 (19)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관한 연구

박병광

INSS 연구보고서 2019-10

중국인민해방군 현대화에 관한 연구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전전략연구원
발행인 조동호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일 2019년 12월
발행일 2019년 12월
편집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ISBN 979-11-89781-16-3 (94340)
979-11-89781-05-7 (19)
가격 비매품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연구보고서 2019-10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관한 연구

박병광

목차

국문초록	6
------	---

I. 서론	8
-------	---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3

II.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이해	18
--------------------	----

1. 인민해방군의 건국 이전 태동과정	19
2. 인민해방군의 건국 이후 발전과정	23
3. 인민해방군의 개혁시기 변화과정	27

III. 중국의 안보환경 인식과 국방정책	34
------------------------	----

1. 중국의 대외안보환경 인식	35
2. 중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	42
3. 중국의 국방 및 군대개혁	50

IV. 중국인민해방군 현대화 동향	60
--------------------	----

1. 해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61
2. 공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72
3. 로켓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77
4. 우주군사력 현대화와 발전	85

V. 결론: 파급영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96
-----------------------	----

1.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대한반도 파급영향	97
2. 우리의 대응방향	100

Abstract	108
----------	-----

참고문헌	110
------	-----

국문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창설 배경 및 발전과 개혁개방 이후의 현대화 동향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중국 부상의 현실은 이미 ‘경제영역’을 뛰어넘어 ‘군사영역’에서도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존의 세력균형에 대변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제를 배경으로 한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결국 한반도에도 적잖은 안보딜레마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의도하는 바는 자국의 필요에 따른 ‘힘의 투사력(power projection)’을 구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의도하는 경쟁대상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지 한국이 직접적 목표나 대상(target)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안보균형점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잠재적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기초 위에서 중국과 군사분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

고 상호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같은 주변강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자주국방력을 기르고 한미동맹의 효율적 활용을 고민해야만 한다. 아울러 한국은 이른바 ‘고슴도치전략’ 또는 ‘독침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고슴도치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에 대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지력 보유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핵심어

중국인민해방군, 힘의 투사,
한중관계, 고슴도치전략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국제정치학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는 대표적 현실주의 학자의 하나인 존 미어쉐이머(John J. Mearsheimer)는 그의 저술 『강대국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에서 “역사상 군사력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강대국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강대국의 지위는 상대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결정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¹ 실제로 고대 로마의 패권적 지위는 물론이고 중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의 강대국 지위를 가능케 한 것은 군사적 능력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중국의 꿈(中國夢)’을 외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구하는 중국 역시 ‘경제강국’을 뛰어넘어 ‘군사강국’으로의 적극적 행보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국민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미국에 다음가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며 금세기 중엽 이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력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혁신하며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중국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급속히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 대륙에 대한 ‘반접근 및 접근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능력 강화’, ‘정밀타격능력 향상’, ‘핵 억지력 강화’, ‘원거리 공정작전능력 확충’ 등을 위한 군사현

1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p. 5.

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² 중국인민해방군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전략의 변화’, ‘첨단무기의 확보’, ‘자체군사기술개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국방군대개혁’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해군의 경우 신형 구축함과 핵(核)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을 개발하면서 해양거부(local sea denial)에 치중하던 연안 해군에서 벗어나 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해양통제(sea control)를 염두에 둔 ‘이양(二洋)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중국이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는다면 대양해군(blue-water navy)의 위용을 갖추고 태평양에서 미국과 경쟁할 날도 훨씬 빨리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핵(核)전력에 있어서도 중국은 약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 강국일 뿐 아니라 핵무기의 다탄두화(MIRVed missile)와 잠수함 탑재 핵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제3의 핵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국은 육지와 해양 그리고 하늘에 이어 “우주는 제4의 전장”이라는 개념하에 우주전 능력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2007년 1월과 2010년 1월에 연이어 우주상공에 떠 있던 자국의 노후위성을 지상발사 로켓으로 파괴하는 반위성(Anti-Satellite, ASAT) 무기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현재 고출력 레이저 및 초단파, 입자 빔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반위성(ASAT)무기 개발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사이버전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가 원자탄의 사용보다 효과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미 1997년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게 있어서 군사력 증강 및 현대화전략은 이른바 ‘G2시대’에 걸맞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 요소인지 모른다.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군사력은 동시에 동아시아의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의 전략적 긴장관계를 보다 가시적 차원에서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2017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중국을 경쟁자(competitor)이자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강조하고 있다.³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영유권 분쟁과 센카쿠(중국명 釣魚島)를 둘러싼 중일간 동중국해 분쟁은 물론이고 대만문제로 인한 양안(兩岸)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언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전력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역내 안보불안과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첨단화 수준에서 상대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방비 투자 수준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으로 부상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유량

2 Jonathan D. Pollack, “The Changing Political-Military Environment: China,” Zalmay Khalilzad eds.,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1), pp. 141-142; Taylor M. Fravel, “China’s Search for Military Power,”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1, No.3(2008), pp. 131-136.

3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2017.

(flow)만 고려하는 것이며 저장(stock) 관점에서는 아직도 미중간에 비교 불가능한 격차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해상, 공중, 우주, 기반(경보, 수송, 통신)에 대한 지배력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⁴

미국을 위시한 군사강국들은 기계화 중심에서 정보화 중심으로 군사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크화, 첨단화, 우주화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의 군사현대화 수준은 아직도 선진국들과 최소 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6년 초에 이미 제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22 랩터(F-22 Raptor)를 공군에 정식 배치했으나 중국은 2011년 초에야 비로소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쟈-20(J-20)의 시험비행에 성공했을 뿐이다. 또한 중국은 해양강국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겨우 6만 톤 규모의 디젤엔진 항공모함 1척을 실전 배치했으나 미국은 이보다 훨씬 배수량이 큰 11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처럼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의 속도 역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대항할 만한 잠재적 패권국으로 급속히 부상 중인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경제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오늘날 중국 부상의 현실은 이미 '경제영역'을 뛰어넘어 '군사영역'에서도 빠

르게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존의 세력균형에 대변동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가능성의 영역에서 '실존의 영역'으로 다가갈수록 그에 따른 파급영향에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게 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부상은 먼저 그 나라가 위치한 지역(region)에서 주도적 지위를 장악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⁵ 무엇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중국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따라 '국가존망(國家存亡)'이 엇갈렸던 한반도로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른 영향이 지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대륙으로부터 보호와 침략을 동시에 받아왔으며, 특히 우리가 중국에 대해 주종 관계를 거부했을 때 대륙에게서 당했던 수모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부상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학술적이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구 필요성과 동기를 강하게 자극하는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2. 연구의 목적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대국'뿐 아니라 '군사대국'으로의 탈바꿈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지도부가 주창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은 과거 그들이 수천 년간 누려왔던 '강

4 Stephen G. Brooks and William C. Wohlforth, "The Risa and Fall of the Great Power in the 21st Century: China's Rise and the Fate of America's Global Posi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40, No.3 (2015/2016), pp. 7-53.

5 박병광,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 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6권 2호 (2010), p. 36.

대국(great power) 지위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길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진핑(習近平)은 ‘강군몽(強軍夢)’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으로서는 당분간 끊임 없이 ‘군사대국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후반기는 ‘경제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는 시기였다면 21세기의 전반기는 세계가 ‘군사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경악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⁶

군사력이 강대국화의 핵심요소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군사력 격차를 줄여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 돌아보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따라잡기(catch up)는 ‘경제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사영역’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분명한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며 심지어 군사력 증강의 실상에 대해서조차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의 운명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분석하고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기회(chance)’로 다가온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중국의 군사적 부상도 과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도전(challenge)’과 ‘위협(threat)’으로 다가올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시각에서 중국이 군사적 강국으로 군림하

거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변환을 추구했을 때, 한반도는 언제나 그것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등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⁷

과연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부상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안보위협을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것일까. 필자는 그것을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선부른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한국은 갈수록 ‘한미 군사동맹’과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다양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용인했으나 결국 중국의 경제보복(retaliation)에 직면해야만 했다.⁸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華為)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南中國海)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은 수년 전부터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자기편으로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선택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타협의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지만 군사영역은 ‘흑’과 ‘백’이 존재하고 ‘아(我)’와 ‘적(敵)’이 존재할 뿐 회색지대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한반도의 안보와 무엇보다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당장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재균형정책(rebalancing)’에 이

6 박병광,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동북아 안보,” 『국제문제연구』, 제11권 3호 (2011), p. 52.

7 일례로 중국 군용기는 2018년에만 8차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또한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상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전개하던 중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의 영공인 독도(獨島) 상공을 2차례나 침범하기도 하였고, 한국 공군은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포함한 전술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8 사드(THAAD)배치의 결정 과정 및 그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시사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병광, 『중국의 주변국 경제보복 사례와 시사점』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어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이 적극화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될 때,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한중관계의 심각한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향후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거나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는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주요한 이유는 첫째, 중국의 군사문제를 다루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에 비해서 그것을 특화하여 접근하는 우리 학계의 연구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공동작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 급속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fact)를 확인하고 정확히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버거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군사 분야의 특수성과 보안성으로 말미암아 관련 자료 습득에 있어서도 남다른 어려움이 작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보고서 역시 나름대로의 분명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의 현실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파급영향과 대응의 측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추구하는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는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지적이고 학술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중국은 과연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진정한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시진핑 시기 강조되고 있는 ‘강군몽’의 의미와

실상은 무엇인가? 중국이 군사대국의 목표를 실현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필자가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졌던 근본적 질문들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의도는 무엇이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은 어떠해야만 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이해

1. 인민해방군의 건국 이전 태동과정
2. 인민해방군의 건국 이후 발전과정
3. 인민해방군의 개혁시기 변화과정

1. 인민해방군의 건국 이전 태동과정

중국인민해방군(中國人民解放軍, People's Liberation Army, PLA)은 “중화인민공화국 무장역량의 골간(骨幹)이며, 외부침략에 저항하고, 조국을 보위하며,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주요역량”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인민해방군 병사들의 신조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爲人民服務)”이다.⁹ 흥미로운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하에 있는 ‘당(黨)의 군대’라는 사실이다. 중국의 헌법상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는 국가(정부)의 군대가 아닌 중국 공산당의 군대이다. 따라서 군대의 정식 명칭은 ‘중국국군’이 아닌 ‘중국인민해방군’이다. 중국 내에서는 약칭하여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또는 해방군(解放軍)라고도 부른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일당제로 집권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은 사실상 국가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장력에 의한 군사적 승리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오늘날에도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위상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마오쩌둥(毛澤東)은 ‘정치권력은 무장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당이 무장력을 지도한다’는 그들의 대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¹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내부적인 권력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통수권자의 변동은 있었지만 중국공산당에의 전속은 변함이 없었다. 인민해방군은 과거에 징병제였으나 현재는 경제발전

9 張萬年, 『當代世界軍事與中國國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9), pp. 221-222.

10 楊碧川, 『中國人民解放軍』(臺北: 一橋出版社, 1999), p. 43.

과 인력의 고급화로 인하여 실질적인 모병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역병이 약 230만여 명, 예비군이 80만여 명이다.¹¹ 오늘날 시진핑(習近平) 집권시기의 인민해방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의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5대 군종(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과 5대 전구체제(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로 개편되었다.

인민해방군은 국민당 집권 하에서 중국공산당이 군사력을 동원해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1927년 8월 1일을 창설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1927년 8월 1일 중국공산당은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에서 최초의 무장봉기인 ‘남창기의(南昌起義)’를 준비하면서 ‘홍군(중국공농혁명군)’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인민해방군의 모태가 되었다. 당시 ‘남창기의’에 동원된 홍군(紅軍) 병력은 약 3만여 명으로써 국민당 정부 예하의 일부 전투부대, 장교교육생도, 경찰부대 등에 소속되어 있던 중국공산당원과 추종세력이 중심이 되었다.¹²

홍군(紅軍)의 창설은 중국에서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독자적 무장세력 확보 필요에 따른 것이었으나 실상은 1927년 4월에 시작된 당시 중화민국 정부의 공산당 세력에 대한 일제 소탕에 따른 위기탈출의 필요성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1927년 8월의 ‘남창기의’는 국민당 정부군의 소탕 작전으로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공산당은 본격적인 무장역량 건설에 매진하게 되었다. 홍군 창설 초기 주더(朱德)의 역할은 주목할 만한데 그는 중국공농혁명군(中國工農革命軍) 제1사단을 만들었으며, 1928년 4월에는 남창봉기 이후 낙오된 일부 군대와 호남성

(湖南省) 남쪽의 농민군을 이끌고 징강산(井岡山)으로 들어가서 마오쩌둥이 지도하는 부대와 합세하여 중국공농혁명군 제4군을 창설하였다.¹³

마오쩌둥은 ‘남창기의’가 실패하자 1927년 9월 장시성(江西省)의 징강산(井岡山)으로 들어가 최초의 농촌혁명근거지인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선포했다.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근거지로 하던 홍군은 약 100여 차례에 걸친 무장봉기를 시도했고 여러 곳에서 무장혁명을 일으켰다. 한편 1928년 5월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는 ‘군사공작대강(軍事工作大綱)’을 선포하여 각지의 공농혁명군을 중국공농홍군(中國工農紅軍)으로 개칭하기로 결의했다. 1929년 12월 홍사군(紅四軍)은 구텐(古田)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무산계급 건군 원칙을 확립했으며 당의 지도아래 홍군은 적극적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여 몇 차례에 걸친 국민당 군대와의 토벌작전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1930년대 초반 홍군의 병력은 30여만 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홍군은 3개의 방면군(方面軍, 홍1, 홍2, 홍4)체제를 이루었으며, 제1방면군의 총사령관은 주더, 부사령관은 평더화이(彭德懷)가 맡았고, 총정치위원은 마오쩌둥이 맡고 있었다. 그러나 1934년 10월부터 1935년 10월까지 국민당 군대의 대규모 토벌작전을 피해 홍군은 2만 5천리(9,600km) 장정(長征)에 들어서야 했다. 한편 소련의 영향력으로 인해 지도권을 상실하고 있던 마오쩌둥은 장정 기간인 1935년 1월 구이저우(貴州省) 준의회의(遵義會議)를 계기로 다시 지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 중심의 지도체제를 확립하게 되었고, 코민테른의 간섭

11 李亞明, 『中共解放軍概論』(臺北: 國防大學政治作戰學院出版社, 2016), p. 96.

12 中共中央黨史研究室, 『中國共產黨歷史大事記』(北京: 人民出版社, 1989), p. 49.

13 당시 홍사군의 군장은 주더가 맡았고 마오쩌둥은 당대표를 맡았으며, 천이가 정치부주임, 린뱌오가 대대장을 맡았다. 楊碧川, 『中國人民解放軍』, p. 48.

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혁명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¹⁴ 장정기간 홍군은 생존이 우선이었으며 국민당 군대를 피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로써 결국 서북부의 오지인 산시성(陝西省) 옌안(延安)에 안착하게 되었다.

장정의 후유증으로 상당 부분의 병력과 자원을 소실한 홍군이 재기의 기회를 맞이한 것은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에 따른 항일전쟁에 참가하면서부터이다. 1937년 8월 20일 국민당정부는 공산당 군대인 홍군을 흡수하여 팔로군(八路軍)과 신사군(新四軍)으로 편입하였다.¹⁵ 국민당 군대에 편입되어 팔로군과 신사군으로 개편된 공산당 군대는 주로 화북·화중 전선에 배치되었고, 화남에서는 항일유격대가 만들어져 독립적으로 유격전을 펼쳤다. 항일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홍군은 해방구 전장(戰場)을 확보하게 되었고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¹⁶

한편 항일전쟁 승리 후 1946년 6월 국민당 군대는 본격적으로 공산당 지구를 침공하여 전면적인 내전을 개시하였다. 이에 홍군은 중국 전역에서의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당 군대와 다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해방전쟁이 진행중이던 1947년에 팔로군과 신사군은 ‘인민해방군(PLA)’으로 개칭되었고 전국 인민의 지지를 받아 적극적으로 내전에

임했다.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중국공산당은 적군의 기력을 쇠멸시키는 방법을 취했으며 어느 한 지역을 고수하거나 탈취하는 전략방침을 세우지는 않았다. 우세한 병력을 집중시켜 각지에서 적군을 격파했고 국민당 군대의 전면적·중점적인 공격을 손쉽게 격퇴했다. 인민해방군은 결전시기를 잘 파악하여 적시에 전략적인 공격으로 들어가 국공내전 시기의 ‘3대전투’와 도강(渡江)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¹⁷ 인민해방군은 4년 동안의 분전 끝에 국민당 군대를 섬멸하고 중국에서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주의의 통치체제를 타파하여 결국 신민주주의혁명을 승리로 이끌었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 인민해방군의 건국 이후 발전과정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인민해방군은 신중국의 군사력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확고한 기둥 역할을 했다. 또한 현대화된 군대로 재조직되어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담당하고 국가주권과 영토를 보위하며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건국 초기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수준은 매우 미미했으며 군중 역시 육군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민해방군은 건국 직후 해군과 공군을 창설했으며 총 병력은 550만 명에 달하였다. 1956년에는 전략미사일부대인 제2포병을 네 번째 군종으로

14 준의회의(遵義會議)의 의미와 내용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오수열, 구자현, 최상욱, “대장정(大長征)시기 중공당 내의 노선투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78호 (2016), pp. 71-86.

15 당시 홍군의 지도자로서 훗날 인민해방군 10대 원수(元帥)의 한 사람이 된 류보청(劉伯承)은 국민당군대에 편입되면서 “동지들, 비록 우리의 모자 위 표지는 백색으로 바꾸어 달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붉은색일 것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잠시 홍군 모자와 이별합시다”라고 연설하였다. 楊碧川, 『中國人民解放軍』, p. 109.

16 항일전쟁 초기 5만 명에 불과했던 홍군은 항일전쟁 말기 127만 명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홍군의 발전은 훗날 공산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물질적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다. 李亞明, 『中共解放軍概論』, p. 12.

17 국공내전시기 3대전투는 요녕심양전투(遼瀋戰役), 북경천진전투(平津戰役), 회해전투(淮海戰役)를 이르며 특히 1948년 11월 린뱌오(林彪)가 이끄는 동북인민해방군의 요녕심양전투 승리는 국공내전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창설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민해방군은 1949년 건국 이후 1978년까지 안정적인 국방개혁과 현대화 환경을 구비하기 어려웠다. 우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민해방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하였고, 한국전쟁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¹⁸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인민해방군은 ‘현대화·정규화’의 교훈을 깨달았으며, 소련고문단의 교육 하에 소련의 경험을 학습하고 점진적으로 병역제도, 봉급제도, 동원제도 등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1959년 4월 국방부장을 맡고 있던 펑더화이는 해방군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과 동유럽 7개국을 순방한 뒤 돌아와 즉각 ‘현대화·정규화’의 방침을 실천하도록 지시했다. 당시는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던 때인지라 해방군에게 있어서 현대화와 정규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1959년 8월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펑더화이를 국방부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린뱌오(林彪)가 뒤를 잇게 하였는데 이는 해방군의 ‘현대화와 정규화’ 측면에서 상당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1965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기간은 인민해방군의 발전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일대 사건의 시기였다. 이른바 ‘10년 재난’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기간 동안 인민해방군은 안정된 환경에서 군대의 정규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없었다. 문화대혁명기간 인민해방군은 국가방위를 위한 현대화와 정규화에 매진하

기보다는 린뱌오의 선도 하에 마오쩌둥의 극좌노선을 지지하는 혁명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문화대혁명시기 인민해방군은 소위 ‘삼지양군(三支兩軍)’이라는 구호아래 극좌노선의 실행에 앞장섰다. ‘삼지(三支)’란 마오쩌둥파의 권력쟁탈투쟁을 지지하고, 공장과 기업단위에서의 생산활동 및 권력쟁탈을 지지하며, 농업생산과 농촌인민공사에서의 권력쟁탈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양군(兩軍)’이란 군관(軍管)으로서 군대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전면적인 군사관제를 실시하고, 군훈(軍訓)으로서 군대는 각급 학교에 진주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이상 모든 학교의 학생과 선생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그 결과 인민해방군의 ‘10대원수(十大元帥)’중 이미 작고한 뤼룽환(羅榮桓)과 1959년에 숙청된 펑더화이를 제외한 8명의 원수들이 문화대혁명기간에 모두 숙청되거나 군문에서 퇴진하게 되었다. 또한 1969년 중국공산당 제9차 당 대회에서 마오쩌둥은 린뱌오를 ‘친밀한 전우이자 후계자’로 확립하였으나 권력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자 후계자인 린뱌오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71년 9월 ‘린뱌오사건(林彪事件)’이 발생하게 되었다.²⁰ 린뱌오사건 발생 후 마오쩌둥은 군 내부에서의 대규모 정치운동을 일으켰고 인민해방군 내에서는 거의 매일 정치투쟁이 지속되면서 군대 건설에 집중할 시간과 역량을 보유하기 어려웠다.

19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中國人民解放軍의八十年: 1927-2007』(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11), pp. 416-419.

20 ‘林彪事件’이란 국방부장으로 12년간 복무하고 마침내 마오쩌둥의 후계자로까지 지명되었던 린뱌오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1971년 9월 13일 가족을 군용 수송기에 태우고 소련으로 탈출하던 중 외몽골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되어 전원 사망한 사건을 가리킨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中國人民解放軍의八十年: 1927-2007』, p. 420.

18 楊碧川, 『中國人民解放軍』, p. 13.

그러나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함으로써 문화대혁명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덩샤오핑(鄧小平)이 새로운 중국의 실권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 개방노선을 확정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1979년 1월에 ‘베트남전쟁’을 발동하였다. 인민해방군은 베트남전쟁에서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였는데 해군력이 부실하여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고, 공군과 육군은 연합작전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각 병종 역시 독자적으로 전투를 진행했고, 통신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전장에서의 지휘권 역시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²¹

인민해방군은 30만 명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8만 명의 사상자를 내야만 했다. 한편 덩샤오핑은 소련 해군함대가 하노이 부근 바다에 도착하자 소련의 개입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양국 군대 사이의 현격한 과학기술차이를 실감하고 결국 인민해방군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기에 진행된 군대의 ‘혁명화’와 더불어 ‘현대화, 정규화, 청년화’의 ‘사화(四化)’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군대건설 개혁을 추진하였다.

3. 인민해방군의 개혁시기 변화과정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개혁 개방노선을 결정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은 단지 경제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은 1981년 6월 27일 중국 공산당 제11기 6중전회에서 화궈펑(華國鋒)을 대신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었다. 이후 덩샤오핑은 1985년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100만 병력의 감군을 선포하고, 당시의 11개 대군구(大軍區)를 합병하여 7대 군구(軍區)체제로 개편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단일 병종(兵種)이었던 육군을 다원 병종의 집단군으로 개편했는데, 이는 인민해방군 구조의 중대한 변화로써 1986년에는 육군의 새로운 병종인 육군항공병부대가 창설되었다.²²

중국인민해방군의 개혁개방 이후 발전과정에서 1988년은 인민해방군 역사상 두 가지 큰일을 완성해낸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하나는 문화대혁명의 광풍에 휘말려 마오쩌둥에 의해 폐지되었던 ‘계급제도’를 부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관간부제도’를 설립함으로써 퇴역한 전문기술 간부들이 군대에 남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군(1921.8.1.) 당시에는 계급 없는 평등한 인민의 군대라고 하여 계급제도가 없고, 단지 맡은 직책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체계를 유지했다. 한국전쟁의 교훈으로 1955년 9월에 계급제도가 생겼으나 “군 계급은 인민군대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반대 세력의 주장으

21 楊碧川, 『中國人民解放軍』, p. 13; 李亞明, 『中共解放軍概論』, p. 320.

22 朱成虎, 『新中國成立以來國防和軍隊建設理論與實踐』(北京: 時事出版社, 2012), p. 293.

로 1965년에 계급이 다시 폐지되었다. 1977년 집권한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군의 전문성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해서는 계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1979년 ‘중월전쟁’에서 지휘체계 문란이 제기되자 계급 제도 부활이 본격 추진되었다. 오랜 준비 끝에 1988년 ‘1급 상장’이 포함된 11단계의 군관(장교) 계급, 각 3단계의 사관(준사관) 및 군사(부사관) 계급, 2단계 병 계급으로 구성된 계급제를 만들었으며, 이후 1999년까지 네 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금의 계급제도를 확립했다.²³

중국인민해방군 장성은 상·중·소장으로, 상장(上將)이 우리의 대장(大將)에 해당 된다. 영관은 대·상·중·소교(校) 4단계이며, 대교(大校)가 우리의 준장에 상당 한다. 위관은 상·중·소위이며, 사관(준사관)·군사(부사관) 계급은 통합되어 6급~1급 사관까지 7단계다. 병 계급은 상등병과 열병(列兵)의 2단계로 나뉜다. 한편 군장(軍長, 군단장) 계급은 소장, 사장(師長, 사단장)과 여장(旅長, 여단장)의 기준 계급은 대교다. 단장(團長, 연대장)은 상교, 영장(營長, 대대장)은 중교, 연장(連長, 중대장)은 소교나 상위급이 맞는다.

〈표1〉 중국인민해방군 계급제도

구분	계급
장군(3)	上將, 中將, 少將
영관(4)	大校, 上校, 中校, 少校
위관(3)	上尉, 中尉, 少尉
부사관(7)	高級士官(1級軍士長, 2級軍士長, 3級軍士長), 中級士官(4級軍士長, 上士), 初級士官(中士, 下士)
사병(2)	上等兵, 列兵

한편 1989년 4월 덩샤오핑은 군대가 상업적 경영 활동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하달했는데, 이는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장교와 사병을 포함한 적잖은 군인들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向錢看) 데 따른 것이었다. 일례로 1980년대 개혁개방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전국을 휩쓸면서 군인들은 여관을 만들어 사업을 하거나 군부대 소속 차량을 동원해 운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월급 이외의 수입을 창출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율이 해이해지고 훈련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990년 덩샤오핑은 군대교육제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군사학(軍事學)’ 학위제도를 만들어 군사과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존중받도록 했으며 군사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4년에는 ‘의법치군(依法治軍)’에 관한 중대조치를 제기하여 군사입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했다. 또한 1995년 12월에

23 田越英, 『圖解中國國防』(北京: 人民出版社, 2013), pp. 146-149.

는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과학기술강군(科技強軍)'이라는 중대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인민해방군이 현대화를 향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²⁴

덩샤오핑의 후원 하에서 그가 사망하기까지 7년간 통치능력을 배양해 온 장쩌민(江澤民)은 1997년 9월 50만 감군(減軍)을 선언하면서 정병(精兵)의 길을 선언하였다. 장쩌민은 1998년 4월 '총후근부(總後勤部)'를 두 개로 나누어 총후근부와 총장비부로 개편하였다. 총장비부(總裝備部)는 무기 장비의 연구와 개발 및 제작 외에도 우주공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우주개발사업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총장비부의 설립과 주도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지도부는 미국에 의한 일극 지배기반의 원천이 우주를 활용한 군사력과 정보력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다.²⁵ 그리고 이러한 우주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다고 보았으며 총장비부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겼던 것이다.

중국지도부는 1991년 '이라크전쟁'을 목도 하면서 미군의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고, 미군과 인민해방군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력의 상당한 차이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인민해방군 지도부는 1995년부터 '신군사혁명(RMA)'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

를 위해서 무기장비의 갱신, 군사이론의 창신, 체제편제의 개혁, 군대 인재의 보강 등 '4대 주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²⁶ 특히 군대의 과학기술강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총장비부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우주개발과 군사력 현대화를 결합하는 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장쩌민은 2002년 11월 제16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에게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넘겨주었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계속 유지하면서 인민해방군에 대한 군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그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20만 감군을 실시하여 인민해방군은 230만 명으로 감축되었다. 장쩌민은 2004년 9월 중국공산당 제16기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사임함으로써 후진타오에게 군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인민해방군 내에 과도하게 포진된 장쩌민 세력의 영향력 및 후진타오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말미암아 후진타오 집권 시기 그의 군에 대한 영향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후진타오는 집권 기간 인민해방군 개혁을 위해 어떠한 제안도 주도하기 어려웠으며, 심지어 장쩌민이 임명한 두 명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귀보송(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에게 군대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을 의존해야만 했다.²⁷

후진타오는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에게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동시에 넘겨주었다. 후

24 1990년대 초중반의 인민해방군 발전과정에서의 주요 결정들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 하에 이뤄졌는데 이는 1989년 '천안문사건'의 영향으로 상하이시 서기였던 장쩌민(江澤民)이 갑자기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임명되었으나 중앙정치무대는 물론이고 군대 내에서 장쩌민의 영향력이 아직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25 중국의 우주개발 발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병광, "중국 우주개발의 의미와 영향: 정치·군사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2권 2호 (2006), pp. 35-60.

26 吳弭宇, 『中共新軍事變革』(臺北: 大屯出版社, 2004), p. 16.

27 Philip C. Saunders and Joel Wuthnow, "China's Goldwater-Nichols? Assessing PLA Organizational Reforms," *Strategic Forum*, No.294 (July/August 2016), pp. 1-12.

진타오와 개성이 많이 다른 시진핑은 집권 직후 곧바로 인민해방군에 대하여 “당의 지휘를 들으며(聽黨指揮), 싸움에서 이기고(能打勝仗), 작풍은 우량해야 한다(作風優良)”는 새로운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장기간 “군대의 국가화, 군대의 비당화, 군대의 비정치화(軍隊國家化, 軍隊比黨化, 軍隊非政治化)”라는 ‘삼화(三化)’의 영향 속에 존재했던 인민해방군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일찍이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의 혼란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군의 ‘삼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군에 대한 당의 영도(以黨領軍)’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²⁹

시진핑이 집권 직후부터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지배권을 추구하고 군대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군과 관련된 시진핑의 개인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시진핑은 1979년 청화(淸華)대를 졸업한 직후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이었던 경바오(耿飈)의 기밀담당 비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³⁰ 특히 1979년은 중월전쟁(中越戰爭)이 발생했던 시기이며 인민해방군의 많은 취약점이 노출됨으로써 군대개혁과 감군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시진핑은 경바오의 밑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전임 최고지도자들과는 달리 인민해방군에 대해 나름대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군대 내에

자신의 인맥(攣系/關係)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임명되고,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에 취임함으로써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이라는 3대 권력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었다.³¹ 이외에도 시진핑은 국가안전위원회 주석, 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 군사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 등 당과 국가의 주요 정무직을 독점하는 등 권력의 장악을 통해서 전임 지도자들과는 달리 짧은 시간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군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28 李亞明, 『中共解放軍概論』, p. 20.

29 개혁개방시기 인민해방군은 정치위원회 존재하기 때문에 군대에는 당 조직과 당대표가 불필요하고, 사상정치교육보다는 군사훈련과 전업에만 몰두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시진핑 집권 이후 “군대는 반드시 공산당의 지휘를 받들어야 한다(聽黨指揮)”는 지침이 생경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30 경바오(耿飈)는 중앙군사위 비서장을 거쳐 국방부장과 국무원 부총리 등을 역임했으며 시진핑의 부친 시중헌(聶仲勳) 전 부총리와의 오랜 전우였다.

31 반면에 후진타오는 2002년 11월 장쩌민으로부터 당 총서기직을 물려받았지만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2004년 9월에야 물려받을 수 있었다.

III

중국의 안보환경 인식과 국방정책

1. 중국의 대외안보환경 인식
2. 중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
3. 중국의 국방 및 군대개혁

1. 중국의 대외안보환경 인식

시진핑 지도부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등장하였다.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은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국제질서와 대외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집권과 더불어 ‘강군의 꿈(強軍夢)’을 강조하면서 인민해방군 현대화와 국방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부상이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시진핑 시기 중국의 부상은 경제 뿐 아니라 군사영역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국방정책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지도부가 대외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당의 과업수행을 위한 주요 도구이자 국가의 보위세력으로써 지도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조응하여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정책기조는 크게 보자면 전임지도자들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³² 일례로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 보고(報告)에 나타난 중국지도부의 국제정세 인식은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주제(主題)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3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이동률,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6권 4호 (2012/2013), pp. 17-55; 조영남,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2호 (2013년), pp. 203-231;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60호 (2013), pp. 139-170.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표명하고 있다.³³ 이는 2002년 16차 당 대회 정치보고와 2005년 국무원이 발표한 ‘평화발전백서(中國的和平發展道路)’ 그리고 2010년 중국국방백서(2010年中國的國防)에서 나타난 국제정세 인식 및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덩샤오핑의 세계관과 국제정세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개혁개방시기의 중국지도부에게 있어서 언제나 ‘안보(安全)’와 ‘발전(發展)’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이익의 수호와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을 둘러싼 최근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또한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최근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어느 정도 과거 지도부의 대외정세 인식과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중국지도부는 시진핑 체제를 출범시킨 18차 당 대회 보고에서 “안정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안보와 발전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고 규정한 바 있다.³⁴ 이러한 표현은 과거의 당 대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으로서 중국이 국방 및 대외정책 측면에서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더욱 굳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 건설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시기 강한 국방건설 의지는 중국이 최근 들어 강조하는 해양권익의 보호와 잦은 영유권 분쟁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2013년 4월에 발표된 시진핑 집권 이후의 첫 국방백서 『중국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에서는 시진핑이 강조해 온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대, 전쟁에 나서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겠다는 내용이 새롭게 삽입되었다. 또한 동(同) 국방백서는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남을 건드리지 않으며, 남이 나를 건드리면 나도 반드시 남을 손봐준다(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고 언급함으로써 영토와 주권에 대하여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수호의지를 천명하였다.³⁵ 이는 후진타오 시기에 발표된 2011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평화외교 정책과 방어적 국방정책을 펴는 가운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도, 군사적 확장을 하지도 않겠다”면서 주변국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문건으로는 2013년 4월에 출간된 국방백서 『중국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과 2015년 5월에 발간된 국방백서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 및 2019년 7월에 발간된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 그리고 2017년에 발간된 안보백서 『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 등을 들 수 있다.³⁶

33 18차 당 대회 보고 전문은 다음을 참조. 胡錦濤,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為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2012년 11월 8일), http://wenku.baidu.com/link?url=ULEW9d-AXd0WYO30rpYSld2PM0GIP-GI5cU_V6ap1p0Lk87EwgmwIGXPSIPuwOwLk8nW5Pax4t1X-nv4PYfjPbV8znBnJm7psS2Ovpgriy(검색일: 2019. 8. 19.).

34 “習近平: 繼續朝著中華民族偉大復興目標奮勇前進,” http://www.gov.cn/ldhd/2012-11/29/content_2278733.htm(검색일: 2019. 8. 20.).

35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北京: 人民出版社, 2013).

36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北京: 人民出版社, 2013);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北京: 人民出版社, 2015);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新時代的中國國防』(北京: 人民出版社, 201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北京: 人民出版社, 2017).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2013년 국방백서에서는 “어떤 국가는 아·태 군사동맹을 심화시켜, 군사적인 존재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역의 긴장국면을 자주 조성하고 있다. 일부 인접 국가들은 중국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과 관련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확대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센카쿠(釣魚島) 문제에 있어서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특정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2015년도 국방백서에서는 “오늘날 세계는 과거에 없던 대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다원적이고 복잡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고,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상권익에 대한 도발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반도와 동북아지역은 다방면의 불안정요소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백서는 ‘국지적 위협’을 언급하며 영토주권의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특히 “해상 군사충돌에 대비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백서에 명시하였다. 이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미국과의 지역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수세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명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 국방백서에서는 ‘사드(THAAD)’를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미국을 “지역균형의 훼손자”로 규정하고 있다. 백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양국에 날을 세웠다. 또한 백서는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았다. 중국은 한반도 같은 분쟁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드러냈다.

중국의 2019년도 국방백서에는 미국은 물론 대만,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우방국을 비난하고 경계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백서는 “세계 경제

와 전략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안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미국이 아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배치 및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필요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 백서에서는 일본과 호주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백서는 “일본이 전후 체제를 우회하기 위해 군사 안전 정책을 변경하면서 활발한 군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호주도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아태지역 안보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컨대 시진핑 집권 이후 『국방백서』에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보자면 경쟁상대인 미국은 물론 영유권분쟁을 겪는 주변국들에 대해 노골적인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전략 조정이 역내 질서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지도부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향후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7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 백서에서는 “일부 국가들은 아·태지역에 군사배치를 확대하고, 테러리즘, 자연재해, 다국적 범죄 등 비전통안보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더 많은 국제안보의 책임을 맡아서 아태지

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은 공공안보제품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이 향후 더욱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실천을 통해서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의 주요 이슈와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정세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역시 미국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재균형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며, 중국의 안보위협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본다.³⁷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중국의 지역강대국 부상을 억제하고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지역협력에 대응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³⁸ 따라서 중국지도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미국의 견제를 우회하면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국지도부는 대미관계를 비롯하여 당면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에 주목하면서도 이를 수동적으로 파악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오히려 책임대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의욕과 자신감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核心利益)에 대해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이를 반

영하듯 시진핑은 2017년 ‘신년사(新年辭)’에서 “중국은 평화 발전을 견지하면서도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이 문제는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중국인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³⁹ 또한 그는 2018년 신년사에서 “중국은 세계 발전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밝힘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

국제질서를 주도하겠다고 천명한 중국은 2018년 초부터 각종 신무기를 동원해 군사굴기를 가속화했다. 중국은 2018년 초 산둥(山東)반도를 비롯한 3곳의 공군기지에 자체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쟈(殲)-20을 실전 배치했다.⁴⁰ J-20의 산둥반도 배치는 일본과 한국에 전개된 미국의 F-35 전력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체 건조한 첫 항공모함인 ‘001A형’ 항모의 해상시험을 비롯하여 신형 핵잠수함, 조기경보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을 공개하거나 실전 배치했다. 특히 2018년 10월에는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에 40미터 까지 근접하면서 ‘핵심이익(核心利益)’을 수호하고 증강된 해군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력을 강화해 미래에 세계패권을 놓고 미국과 정면 경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37 吳心伯, “特朗普執政與美國對華政策的新階段,” 『國際問題研究』 2018年 第3期, p. 86.

38 陳寒溪, “美國‘重返亞洲’對東亞合作的影響,”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國際政治』 2013年 1期, p. 35; 金燦榮, 趙遠良, “奧巴馬連任後對外政策及中美關係前瞻,” 『現代國際關係』 2012年 第12期, pp. 13-14.

39 『人民日報』 2017年 1月 1日.

40 『세계일보』 2018년 2월 15일.

2. 중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전략목표는 이른바 ‘중국의 꿈(中國夢)’으로 대변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중국 국방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중국의 국제적 책임과 지위와 역할에 부응하는 군대를 건설하는 것을 국방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민해방군은 시진핑이 집권 후 강조해온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대, 전쟁에 나서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진핑 시기 인민해방군은 미국과 더불어 G2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거침없이 과시하고,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강력한 군대 건설을 표방하는 등 공세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달라진 위상을 국방정책에도 반영하고, “대국으로 우뚝 일어선다”는 뜻의 ‘대국 굴기(大國屈起)’ 전략을 국방 분야에서도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15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중국의 군사전략(中國의軍事戰略)』에서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주권, 안보, 영토안정을 유지하고, 국가의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방건설의 목적”이라고 국방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⁴¹ 이러한 기초 하에 중국은 대만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따라 해외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 이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국방정책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4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北京: 人民出版社, 2015).

시진핑 시기 중국의 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핵심이익(核心利益)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국가안전보호, 주권과 영토완정, 경제 및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핵심이익의 주요 개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리적 경계에서 ‘전략적 경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사해(四海)’ 안전과 더불어 ‘일대일로’와 ‘북극항로’의 안전 및 ‘우주와 사이버’ 영역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⁴² 이를 통해 시진핑 시기 중국 국방정책의 발전목표는 미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더 멀리, 더 깊이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2050년경에는 미군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현대화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표 2〉 중국의 국방발전 목표

1단계	~ 2020년 (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	중대한 진전: 군사개혁, 기계화 및 정보화
2단계	~ 2035년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실현: 군사이론, 군사조직, 군사인재, 무기장비
3단계	~ 2050년 (중국건국 100주년)	세계일류군대 전면건설

또한 시진핑 시기의 국방정책은 실질적인 주요 2개국(G2)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군

42 이창형, 육군교육사령부주최 중국군사력 심포지움 발표문 참조 (2019.6.28).

현대화와 국방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시진핑 집권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비록 2016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2017년 군사비 지출액은 2280억 달러로써 이는 일본을 포함하여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아시아국가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⁴³

중국은 첨단무기 개발에도 매진하여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전투기 J-20을 실전 배치했으며, 두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했고,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DF-21D 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조기경보 및 공중통제능력 강화 등 군사력 증강에서 상당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인 중국은 에너지해양수송로에 위치한 국가들과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항구를 연결하는 ‘진주목걸이’ 전략을 보다 적극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방백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자국의 국방정책은 ‘방어적 국방(defensive defense, 後發制人)’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방어는 ‘소극방어’가 아니라 ‘적극방어’를 의미하는 것이다.⁴⁴ 적극방어의 핵심요소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략적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주권과 영토 내의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적의 공격 시에도 방어에서 나아가 적극적 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⁴⁵

특히 인민해방군의 ‘적극방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전략의 발전이다.⁴⁶ 즉 중국은 일단 유사시 미국의 지원전력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지역에 전개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신속하게 군사목표를 탈취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대만을 공격하는 동안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활주로를 미사일로 타격하여 미 공군의 즉각적인 출동을 방해하는 한편 우주 공간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위성을 파괴하여 C4ISR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이미 2010년도 ‘4개년 국방보고(2010 QDR)’에서 중국의 A2/AD 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군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촉구하였다.⁴⁷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미군의 첨단화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미군의 군사전략 및 첨단화는 중국의 접근거부를 무력화하고 돌파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하고 대만과의 통일을 이룩해야만 한다는 역사적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43 공식 통계가 나와 있는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상위 10개 국가는 미국 6110억 달러, 중국 228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694억 달러, 러시아 663억 달러, 인도 639억 달러, 프랑스 578억 달러, 영국 472억 달러, 일본 454억 달러, 독일 443억 달러 순이며, 한국은 392억 달러로 10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국방기술품질원,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8).

44 적극방어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pp. 59-62; 김재엽, “중국의 대주변국 군사분쟁을 통해서 본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특징, 함의,” 『군사』, 제106호(2018), pp. 139-166.

45 일례로 시진핑 집권 이후 발간된 두 차례의 국방백서는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남을 건드리지 않으며, 남이 나를 건드리면 나도 반드시 남을 손봐준다(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선발제인(先發制人: 선제공격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6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재엽,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 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한국군사학논집』, 제75권 1호(2019), pp. 125-154; 류해성,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 구사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시사점,” 『승參』, 제80호(2019), pp. 60-69.

47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http://www.defense.gov/qdr/images/QDR_as_of_12Feb10_1000.pdf (검색일: 2019.5.31.).

있다.⁴⁸ 그러나 방대한 영토와 상이한 전장 환경으로 인해 다차원적인 군사전략 및 국방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인민해방군 창설 이래 중국의 군사전략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그것이 기존의 군사전략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폐기했다기보다는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혼재된 상황에서 내용 및 중점을 ‘충실하고 세련되게(充實完善)’ 진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⁴⁹

중국 전국 초기의 군사전략(교리)은 ‘인민전쟁론’으로서 이는 자국의 최강 전쟁요소인 인구와 국토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장기적 소모전과 전면전을 전제로 미국과 소련의 대중국 침략을 방어한다는 전략이었다. 인민전쟁론의 핵심은 시간을 벌기 위해 공간을 양보하다가 마침내 가상적(미국, 소련)을 격멸한다는 게릴라전 수행에 있으며 저(底)기술 무기의 다량확보와 대규모 병력의 유지가 필수요소였다. 그러나 인민전쟁론은 개혁개방에 따른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병력, 조직, 무기감축 등 군의 현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1970년대 말 이후 군사전략의 주요 개념으로서의 중요성이 쇠락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군사전략의 핵심은 과거의 조기전(早期戰), 전면전(全面戰), 핵전(核戰)에 대비한 전력태세에서 국경지역의 소규모 분쟁 및 제한적 국지전에 대비한 ‘유한국부전쟁(有限局部戰爭)전략’으

로 전환되었다. 유한국부전쟁전략은 1985년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상정하는 미래전은 초강대국의 대륙침략이 아닌 주변국이 연루된 국경지역 내외에서의 국지전을 의미한다. 중국군이 규정하는 국지전은 한국전쟁(1950), 베트남전쟁(1979), 걸프전쟁(1991), 이라크전쟁(2003)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까지 ‘유한국부전쟁’에 기초한 현대전 경험이 없으나 이 전략은 중국군 현대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⁵⁰

한편 인민해방군 지도부는 1991년 걸프전쟁을 목도하면서 미래전의 성패는 첨단 군사기술의 획득 및 운용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1993년에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高技術條件下的局部戰爭)’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특히 대만과의 무력충돌 상황을 주요한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 현대화는 대만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확보 및 미국의 대(對)대만 사태 개입 저지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은 지상군의 신속대응능력, 해군의 적극적 근해방어능력, 공군의 원거리 투사능력, 핵·미사일 전력의 기술 수준 제고 등 전반적 군 현대화의 기본 독트린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 들어서 인민해방군은 정보전 능력과 중국 특색의 전략 결합을 강조하는 미래의 새로운 전장 운용개념으로써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 전략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이 전략은 여전히 제한된 국부전쟁을 상정하고 있지만 미래의 적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고도의 무기체제와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능력, 나노기술 등을 보유한 강대국일 것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정보

48 중국군에 관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학자들 간에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샴보(David Shambaugh)는 ‘적극적 방어’라는 개념을 중국의 군사전략으로 간주하는 반면 프래블(Taylor Fravel)은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을 중국의 군사전략으로 본다. 그리고 핀켈스타인(David Finkelstein)은 중국이 군사전략에 관한 공식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제시해온 ‘군사전략방침’을 일종의 국가군사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중소연구』, 제32권 3호 (2008), pp. 54-55.

49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한국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김태호 외, 『중국제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파주: 나남, 2008), pp. 79-82 참조.

50 박병광,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동북아 안보,” 『국제문제연구』, 제11권 3호 (2011), pp. 34-35.

화시대의 군사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포함하여 우주전과 사이버전 능력 구비, 심리전 능력제고, C4ISR체계 구축, 항공모함 구비 등 모든 수단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⁵¹

〈표 3〉 중국 군사전략의 변화

시 기	주요사건	군사전략	비 고
건국초기 (1949-1952)	한국전쟁 (1950-1953)	인민전쟁전략	인민전쟁전략의 한계성 인식
1차5개년 계획 (1953-1957)	중·소 우호조약 (1950) 중·소 국방신기술협정 (1957)	인민전쟁전략의 후퇴와 현대화· 정규화사상 대두	소련의 적극적 지원 군사제도에 의한 개혁 시도
대약진운동 (1958-1965)	중·인 국경분쟁 (1962) 핵실험성공(1964)	인민전쟁전략으로의 복귀	중·소관계 악화 인민전쟁 복귀 핵무기계획 추진 정규화노선 대두
문화대혁명 (1966-1976)	중·소 국경분쟁 (1969) 린뱌오사건(1971)	현대적조건하 인민전쟁	마오쩌둥 군종노선 추진
개혁·개방시기 (1980년대)	중·월전쟁(1979)	유한국부전쟁전략	덩샤오핑/개혁파 등장 국경지역의 소규모 국지전 대비
1990년대	걸프전쟁(1991) 코소보전쟁(1999)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전략	첨단무기체계 및 고도의 군사과학기술(C4ISR)이 운용 되는 지역전 대비
21세기 초	아프간전쟁(2001) 이라크전쟁(2003)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전략	첨단무기체계 및 고도의 군사정보기술이 운용 되는 미래전 대비
시진핑 시기	남중국해분쟁(2010) 등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연합작전전략	첨단무기체계 및 고도정보기술 조건하 연합작전능력 구축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p. 83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51 Robert M. Gates,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88, Issue 1(Jan/Feb 2009), p. 33.

21세기 초반까지 중국의 군사전략은 1993년 제시된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 교리와 2004년에 『국방백서』를 통해 처음 제시된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 교리가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⁵²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군사전략은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서구의 정보화에 편승하고 따라잡겠다는 ‘도약(跨越)식’ 군사발전전략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서면서 인민해방군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더 강한 군대’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는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군사전략 구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민해방군 지도부는 첨단무기체계에 기반을 둔 연합작전능력 배양을 목표로 기존의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전략(信息化條件下局部作戰戰略)’에서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연합작전전략(信息條件下局部聯合作戰戰略)’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⁵³

인민해방군에서 말하는 정보화(信息化)추진이란 1990년대부터 ‘국방현대화’ 정책에 따라서 무기와 장비를 첨단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주요 흐름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연합작전(聯合作戰)능력의 강화는 정보화조건하 국지전이라는 전장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군종과 작전체계의 협동을 통해서 ‘강력한 일격으로 단기간에 분쟁 혹은 무력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52 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에서 ‘정보화(信息化)’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02년 국방백서부터이며,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군사혁신(新軍事變革: RMA)’의 등장과 더불어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에 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53 심현섭, “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군사』, 제103호 (2017), pp. 148-149.

능력'을 구비 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특히 중국의 연합작전 개념은 '군민 융합(軍民融合)'과 '평전일체(平戰一體)'라는 개념을 통해서 평시부터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중이다. 예를 들어 통신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관련 민간전문가 활용 및 인재양성, 군민 공동연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이를 위한 법제개편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⁵⁵

3. 중국의 국방 및 군대개혁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강군몽(強軍夢)'을 강조하면서 향후 인민해방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진핑은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것은 근대 이후 가장 위대한 중국의 꿈이며(中國夢), 이 꿈은 강국의 꿈이고(強國夢) 군대에 대하여 말하자면 강군의 꿈(強軍夢)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시진핑이 주장하는 '강군몽'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토대로서 강한 군대의 건설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는 집권 초기부터 "실전능력을 배양하여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⁶

시진핑은 '강군몽(強軍夢)'을 실현하고 이기는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에 대한 '국방 및 군대개혁(國防和軍隊改革)'을 단행하였다. 중국공산당은 2013년 11월 제18기 3중 전회 결정문에서 "중국군의 고

질적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군의 규모와 구조를 최적화하고, 군종과 병종 간의 균형을 모색하며, 비전투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⁵⁷ 중국공산당 전체회의 결정문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내용이 단독으로 다루어진 것은 역사상 처음이며, 이는 시진핑이 국방 및 군대개혁에 관한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은 2014년 3월에는 중앙군사위원회에 '국방 및 군대개혁 영도소조'를 설립하였으며, 직접 '국방 및 군대개혁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았다. 시진핑 시기 인민해방군의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시진핑이 2015년 9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중국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⁵⁸ 시진핑은 2015년 11월 24일~26일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 개혁공작 업무회의'에서 인민해방군의 개혁로드맵을 제시했으며, 12월 31일에는 육군영도기구, 로켓군, 전략지원부대를 신설하고 사령관들에게 부대기를 수여했다. 이어서 2016년 1월 11일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을 개편하고, 2월 1일에는 기존의 7대 군구(軍區)체제를 5대 전구(戰區) 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인민해방군은 2017년에 추가적인 국방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육군의 5개 집단군을 해체하고 30만의 병력을 감축하였다. 중국의 집단군은 2016년 2월 7대 군구를 5대 전구체제로 전화할 때에도 18개로 유지되었으나, 2017년 4월 27일 육군의 집단군 수를 13개로 축소하고 각

54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 합동작전의 개념으로 연합작전을 규정하는 데 비해 중국의 연합작전이란 군종과 작전체계의 협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차이를 지닌다.

55 石佳坤, "關於邊防信息化體系建設的幾點思考," 『国防』, 第2期(2016), pp. 69-70.

56 "習近平: 堅持富國和強軍相統一努力建設鞏固國防和強大軍隊," 『解放軍報』, 2012年 12月 13日.

57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 (검색일: 2019. 5. 8).

5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국 시진핑의 군사개혁(2016-2017),"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8-02』 (2018. 2), pp. 1-2.

집단군의 부대 명칭을 새로 부여했다.⁵⁹ 또한 2017년 2월 15일 인민해방군 제26집단군 제77여단은 해군육전대로 재편되었으며, 해군육전대 규모를 기존의 2개 여단에서 6~7개 여단으로 확대하고자 한다.⁶⁰

〈표 4〉 중국인민해방군 13개 집단군 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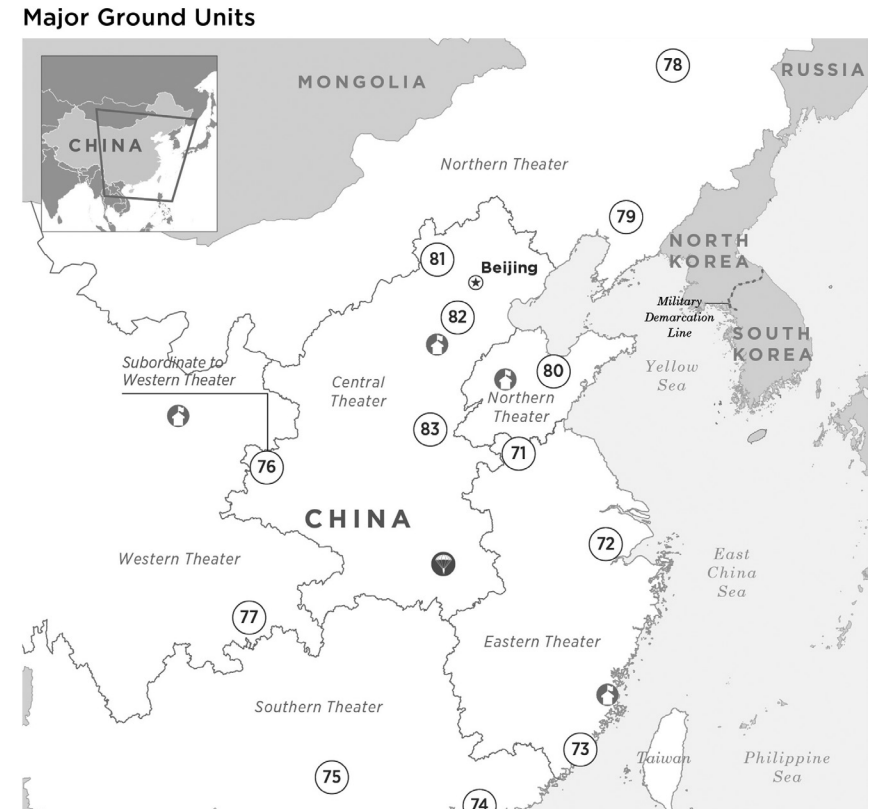
전구	기존 부대번호	새 부대번호	사령부 위치
동부전구	12집단군	71집단군	취저우(江蘇省徐州)
	1집단군	72집단군	후저우浙江省(湖州)
	31집단군	73집단군	샤먼(福建省廈門)
남부전구	41집단군	74집단군	류저우(廣西柳州)
	42집단군	75집단군	후이저우(廣東省惠州)
	14집단군	해체	
서부전구	21집단군	76집단군	시닝(青海省西寧)
	13집단군	77집단군	중칭(重慶)
	47집단군	해체	
북부전구	16집단군	78집단군	창춘(吉林省長春)
	39집단군	79집단군	랴오양(遼寧省遼陽)
	26집단군	80집단군	웨이팡(山東省濰坊)
	40집단군	해체	
중부전구	65집단군	81집단군	장자커우(河北省張家口)
	38집단군	82집단군	바오딩(河北省保定)
	54집단군	83집단군	신상(河南省新鄉)
	20집단군	해체	
	27집단군	해체	

자료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p. 27.

59 중국의 집단군(集團軍)은 약 5만 명 내외로 구성되며 우리의 군단(軍團, Corps)에 해당된다.

60 “解放軍海軍陸戰隊擴編7旅10兵陸軍王牌轉型”, <http://news.takungpao.com.hk/mainland/focus/2017-03/3432285.html>(검색일: 2019. 5. 13).

〈그림 1〉 중국인민해방군 5대 전구 및 집단군 배치도



자료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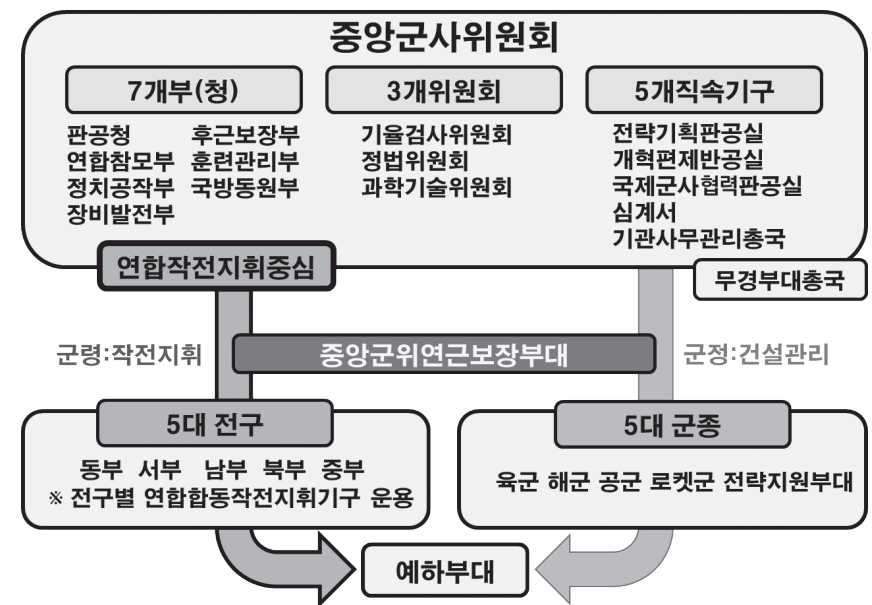
시진핑 지도부가 국방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에는 각종 무기의 현대화 및 작전개념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현대전에 부합하기 위한 개혁의 불가피성이 작용한다. 때문에 인민해방군은 국방개혁을 위해서 특히 미군의 작전개념, 구조, 능력 등 ‘일체화된 연합작전방식(joint operation)’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의 일환으로서 국방

개혁에 착수하였다. 인민해방군이 국방개혁을 단행하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지도부의 ‘군에 대한 통제 및 권력 강화’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다. 과거 중앙군사위원회의 권력은 4총부에 분산된 측면이 있었으나 군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권력을 회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당의 군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고자 했다.⁶¹

시진핑 시기 중국 국방개혁의 중점은 미래의 통합연합작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영도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⁶² 그 결과 국방 및 군대개혁으로 중앙군사위원회는 기존의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장비부, 총후군부 등 4총부를 해체하고, 총부제(總部制)를 7개부(청), 3개 위원회, 5개 직속기구로 구성된 15개 직능부서로 개편되었다.⁶³ 인민해방군의 국방개혁은 조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지휘구조와 관련하여 모든 권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집중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4총부 해체 이후 신설된 15개 직능부서 이름 앞 상부명칭을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중앙군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군사정책 결정과 군 지휘에 있어서 모든 권력이 중앙군사위원회로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군령권’을 중심으로 하는 작전지휘는 중앙군사위원회-5대 전구-집단군 체계를 유지하고, ‘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지휘는 중앙군사위원회-5대 군종-집단군 형태로 간소화하였다.⁶⁴

〈그림 2〉 국방개혁 이후 중국인민해방군 구조



한편 인민해방군은 1966년 이후 해·공군·제2포병의 3개 군종을 유지해 왔으나 시진핑 시기 국방개혁의 결과 육·해·공군·로켓군·전략지원부

61 일례로 국방개혁 이전의 군대 구조에서 시진핑은 4총부, 7대 군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서 영도권을 행사해야 했으나 구조개혁 이후 확대회의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62 “中央軍委關於深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 http://news.xinhuanet.com/mil/2016-01/01/c_1117646695.htm (검색일: 2018. 5. 14).

63 “習近平在接見軍委機關各部門負責同志時強調講政治謀打赢搞服務做表率努力建設四鐵軍委機關,” 『解放軍報』 2016年 1月 12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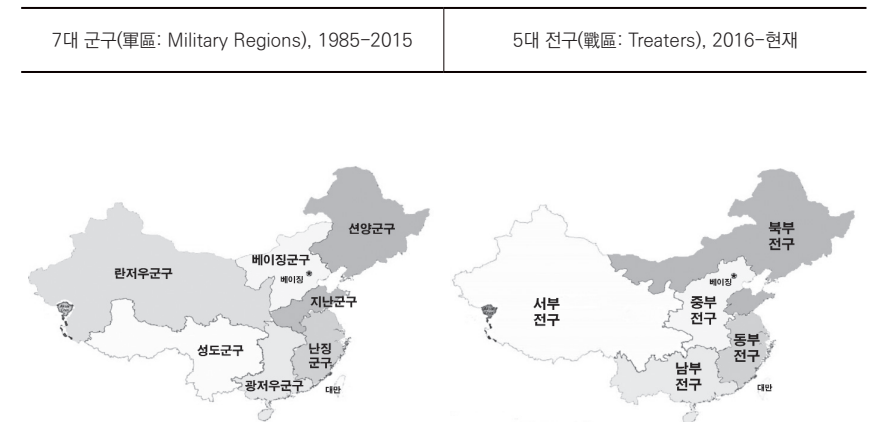
64 지휘체계에서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한 것은 군내의 파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반부패의 상징이었던 귀보송(郭伯雄)과 쉬자이후우(徐才厚)가 각기 란저우군구와 선양군구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여 매관매직 등 부패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의 5대 군종체제로 재편되었다.⁶⁵ 과거에는 총참모부에서 육군사령부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총참모부 해체 이후 새로이 ‘육군지휘기구(陸軍領導機構)’를 창설하여 육군의 군정권 및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이는 과거 ‘대육군체제’가 약화되고, 해군·공군·로켓군과 동등한 지위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포병이 ‘로켓군’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전략위협을 핵심역량으로 핵 상시검비, 전역 핵위협능력 구비 등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신뢰성 있는 핵위협 및 핵반격 능력을 증대시키고 중장거리 정밀타격역량 구축을 강화하여 전략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이다. 또한 ‘전략지원부대’는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역량으로서 군 작전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독립된 군종으로서 주로 정보, 기술정찰, 전자대항, 사이버공방, 심리전 등 5대 영역의 임무를 아우르게 된다.⁶⁶

인민해방군은 2016년 2월 1일 기존의 7대 군구(軍區)를 통폐합하고 이들의 임무와 책임을 재조정하여 5대 전구(戰區)체제로 전환하였다. 새로 편성된 5대 전구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전구로서 각 전구가 담당하는 책임지역 내의 육군·해군·공군 및 로켓군 전력을 통합 운용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하며, 평시에는 연합작전훈련만 책임지고 부대관리와 건설은 각 군종 사령부가 책임진다.⁶⁷ 각각의 전구별로 책임지는 지역과 유사(有事)는 동부전구(대만~일본), 서부전구(중앙아시아~인도), 남

부전구(남중국해), 북부전구(러시아~몽골~한반도) 등이며, 중부전구는 전략적 예비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에서도 북부전구의 경우 책임 지역이 동북3성, 산둥반도, 내몽골 등이며, 예하 집단군이 창춘(78), 랴오양(79), 웨이팡(80) 등에 배치된 것은 북부전구의 주요 관심 지역이 한반도라는 것을 반영한다.

〈그림 3〉 중국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



인민해방군 국방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통합작전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이와 관련된 성과로서 2016년 4월 20일 ‘중앙 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센터(中央軍委聯合作戰指揮中心)’를 정식으로

65 시진핑은 새로운 군종 창설행사 연설에서 “육군지휘기구,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창설은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 실현을 고려해 내린 중대한 정책결정이며, 중국특색의 현대군사역량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언급했다. “陸軍領導機構火箭軍戰略支援部隊成立大會在京舉行,” 『人民日報』, 2016년 1월 2일.

66 방준영·양정학, “중·일 국방개혁 현황과 한국에의 함의,” 『전략연구』, 제25권 2호 (2018), pp. 95-96..

67 中國人民解放軍陸戰區成立大會在京舉行,” 『解放軍報』, 2016년 2월 2일.

대외에 공개하였다.⁶⁸ 연합작전지휘센터의 총지휘(總指揮)는 시진핑이 맡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연합작전지휘센터 구성원으로 편성되었고, 5대 전구에도 ‘전구 연합작전지휘센터’를 설립하여 전구 전략 방향 상의 연합작전 지휘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는 각 전구의 경우 관할구역 내의 모든 군(병)종 연합작전임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센터는 전구의 관할범위를 초월하는 작전 임무에 대한 연합지휘만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시진핑은 2015년 9월 항일전쟁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30만 감군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군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시진핑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2020년까지 기본적인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기본적인 국방 및 군 현대화를 달성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고의 군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주장하였다.⁷⁰ 이는 후진타오 시기에 국방 및 군 현대화의 목표로 “21세기 중반까지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것과 비교해 2035년으로 목표 시점을 앞당겼을 뿐 아니라 2050년까지 ‘세계 최고의 군대’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결국 중국 국방개혁의 핵심은 시진핑이 강조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군대를 이용하여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더 나

아가 중국의 꿈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8 한국의 경우 ‘한미연합사령부’의 명칭에서 보듯이 타국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작전을 ‘연합(joint)’이란 용어로 규정하는 데 비해 중국은 각기 다른 군종간의 합동훈련을 ‘연합(聯合)’이란 용어로 표현한다.

69 이와 같은 조치는 과거 중국군의 작전이 군구별로 육군, 해군, 공군, 제2포병의 독자적인 지휘하에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상하가 연계되고 각 군의 합동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전이 수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19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人民日報』2017年 10月 29日.

IV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 동향

1. 해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2. 공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3. 로켓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4. 우주군사력 현대화와 발전

중국인민해방군은 개혁개방이후 경제력의 축적과 더불어 급속히 군사력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군은 단지 육, 해, 공, 로켓군 등 기존에 보유하던 군종의 현대화 뿐 아니라 최근에는 민군융합(軍民融合)을 통해 대미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며 AI(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심해 능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⁷¹ 중국은 이를 통해서 미국의 허점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특히 5G시대를 미국보다 먼저 선도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도 첨단 지능군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일단 중국의 해군, 공군, 로켓군, 우주군사력 등을 중심으로 현대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해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가. 중국해군의 해양안보전략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해군의 위상은 중국인민해방군(PLA) 내에서도 상당히 취약했으며 해군이 보유한 무기체계 역시 매우 낙후된 상태였다. 해군 창설 초기 중국해군은 단지 30척의 노후한 상륙함정 뿐이었으며, 지상군 위주의 군구(軍區)에 예속되어 지상 작전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과했다. 중국해군이 잠수함을 처음 보유하게 된 것도

71 최근 인민해방군의 민군융합을 통한 '지능화군(知能化軍)' 건설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창형, "중국의 민군융합 통한 지능화군 건설전략," KIMS Periscope 166호, (2019.8.).

1953년 7월 소련의 원조에 의한 것이었다.⁷²

반면 냉전시기 중국의 주변국들은 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냉전시기에도 전통적인 해양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은 물론 전략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에 함정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전쟁시기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해양통제권을 장악하여 지상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중국을 위협했으며,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전개하여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기도 했다.⁷³

이에 자극받은 중국은 냉전 시기 해군력 증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육군이나 공군 그리고 포병의 발전에 비하면 여전히 그 속도와 무기체계는 낙후를 면치 못했다. 단적으로 냉전 시기의 중국해군은 자국 연안은 물론 근해에서 독자적 해상작전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1970년대 중반까지도 중국해군은 육지에 기지를 둔 레이더 범위 내에서(해안선에서 약 50해리) 해안선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치중할 뿐이었다. 따라서 중국해군의 해양안보전략은 1949년 창설 초기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연안방어전략(沿岸防禦: near-coast defense)’을 유지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대륙 국가에서 발견되어지는 전형적인 해양방어 전략의 특징이기도 했다.⁷⁴

72 이재형, 『중국의 해양전략』 (서울: 황금알, 2007), p. 61; Greg Austin, *China's Ocean Frontier* (NSW: Allen & Unwin, 1998), p. 94.

73 박병광,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관한 소고,” 『국가전략』, 제17권 4호 (2011), p. 176.

74 마오쩌둥(毛澤東)시기 중국해군이 ‘연안방어전략’을 고수한 데에는 어떤 면에서 건국 초기부터 1970년대 말까지 유지되어 오던 ‘인민전쟁전략’의 군사교리에 영향 받은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민전쟁론의 핵심은 시간을 벌기 위해

그러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해군의 해양안보전략은 ‘연안방어(沿岸防禦)’에서 ‘근해방어전략(近海防禦戰略/offshore active defense)’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들어 중국의 해양안보전략이 확대·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대외적으로는 소련해군의 위협에 기인하며, 대내적으로는 덩샤오핑(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제2세대 영도집단의 등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⁵ 소련해군은 1970년대 말부터 베트남 캄란만(CarmRanh Bay)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항공모함 민스크(Minsk)와 잠수함 등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감시 활동을 적극화하기 시작했다. 또 소련해군은 중국과 대립하던 베트남에 각종 함정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지도부로 하여금 해군을 강화시키고 해양안보전략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자극했다. 특히 1982년 8월 해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류화칭(劉華淸)은 중국의 경제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지역에서 주요 해상강국으로 성장해야 하며, 중국해군의 전략을 ‘연안방어’에서 ‘근해방어’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⁷⁶

류화칭은 해군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중국 최초의 핵(核)잠수함인 장정(長征)계열의 한급(091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 ‘근해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이 강

공간을 양보하다가 마침내 가장 적을 격멸한다는 게릴라전 수행에 있으며 재래식 무기의 다량확보와 대규모 병력의 유지가 필수요소였다.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2000년 이후 전력증강 추이 및 지역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73호 (2006), p. 172.

75 덩샤오핑(鄧小平) 중심의 2세대 영도집단이 주창하던 ‘근해방어전략(近海防禦戰略)’은 長期防禦, 積極防禦, 區域防禦, 縱深防禦의 네 가지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韓文琦, “論新中國海軍發展戰略之演化,” 『西安政治學院學報』, 第3期(1999), p. 68.

76 Zhan, Jun, “China Goes to the Blue Water,” *Strategic Studies*, Vol.17, No.3 (1994), p. 190; 劉華淸, 『劉華淸回憶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4), p. 437.

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로 탈바꿈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⁷⁷ 한편 중국해군은 2000년대 초반까지 ‘근해함대’ 능력을 구비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제1도련선’ 내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며, 2020년경까지 ‘제2도련선’까지 해양통제권을 확대하고, 2020년 이후에는 자체 개발한 첨단 함정들을 바탕으로 제2도련선 외곽 해역에 대한 통제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⁷⁸

한편 중국은 1980년대 해양안보전략에 관한 자체 논의에서 대양해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제1단계(1985-2000)기간에 해군력 현대화를 통해 해군의 작전반경을 확대해 남사군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에 대비하고 근해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목표를 세웠다. 제2단계(2001-2020) 기간에는 항공모함을 확보해 항모전단을 창설·운용함으로써 해군작전 범위와 임무를 필리핀 해와 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확대하고, 근해방어에서 전진방어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제3단계(2021-2050) 기간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입체적 작전능력을 갖추고, 원거리 해상수송로 보호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에 대응하는 해양국가로 성장한다는 것이다.⁷⁹

77 류화칭은 중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해양전략의 개념과 성격, 목적, 임무 그리고 작전구역 등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劉華清, 『劉華清回憶錄』, pp. 437-438.

78 제1도련선(島鏈線)은 일본열도로부터 대만과 남사군도를 포함하여 베트남 및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지역이다. 이는 중국 연안에서 약 1,000km 떨어진 지역을 포함한다. 제2도련선은 중국 연안에서 약 2,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제도, 오키나와제도, 마리아나제도, 팔라우군도, 할마헤라 섬을 연결하는 구역이다. 1도련선 및 2도련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James R. Holmes and Toshi Yoshihara, *Chinese Naval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The Turn to Mahan* (New York: Routledge, 2008); Robert D.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Vol.89, No.3(2010).

79 Bernard D. Cole, *The Great Wall At Sea: China's Navy Enters the Twenty-First Century* (Annapolis: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군현대화 및 해양 전략 발전을 통한 ‘원양해군’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일례로 후진타오 주석은 2009년 4월 해군창설 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근해해군에서 벗어나 원양해군으로 거듭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도 ‘중국해군은 원해(遠海)방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특별 게재하여 중국의 해양작전개념이 과거의 근거리해역 방어에서 원거리해역 방어로 전환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⁸⁰ 이에 따라 2011년 3월에 중국국방부가 발간한 ‘중국국방백서(2010年中國的國防)’에서는 처음으로 ‘근해방어, 원해호위(近海防禦, 遠海護衛)’를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7월 발간된 최신 국방백서에서는 ‘근해방어, 원해방위(近海防禦, 遠海防衛)’라는 표현으로 수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해군력 발전을 토대로 이제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원양해군 건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것임을 보여준다.

Naval Institute Press, 2001), pp. 164-168.

80 『解放軍報』, 2009년 4월 26일. 이날 사설에서 중국군 지도부는 “21세기 들어 해양영토와 해양자원, 해양권익과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 해군은 작전과 훈련 영역을 근(近)과 원(遠)을 결합하는 공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국 해군의 국제적 지위를 높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림 4〉 대양해군을 향한 중국의 해양안보전략



나. 중국해군의 현대화 동향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 동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해군력 현대화’이다.⁸¹ 23만 5천명의 병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규모의 해군이지만 오랫동안 낙후된 이미지 속에 갇혀 있던 중국해군은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양한 현대화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중국해군은 근해해군에서 벗어나 서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해양통제를 추구하는 ‘이양전략(二洋戰略)’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해군은 항공모함 전단을 구비하고, 최신형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자체 개발한 대규모 신형구축함 개발 등 ‘대양해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체제 등장 이후 중국해군은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에 이어 새로운 자체 항공모함의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수의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항모용 전투기 J-15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제작 대잠초계기인 ‘가오신(高新) 6호’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해군은 2013년 말 보하이(渤海)만에서 094형 핵잠수함을 이용해 ‘취랑(巨浪)-2’ 잠수함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 11월에는 다탄두 핵미사일을 탑재한 사거리 12,000 km의 ‘취랑(巨浪)-3’ 실험발사에 성공하였다.⁸²

원양해군을 향한 중국해군의 목표와 구상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정개발 그리고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힘입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즉, 과거의 ‘근해해군(green water navy)’으로부터 ‘대양해군(blue water navy)’으로 성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해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중 하나는 미 해군 제7함대와 같은 중국만의 ‘기동함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기동함대는 수상, 항공, 수중, 군수지원전력, 조기경보 등 다방면에서 입체적인 전력 건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운용하는 해군의 기동함대는 대부분 항공모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해군도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항공모함 개발과 입체 전력 건설을 통해서 그들이 희망하는 기동함대의 완성을 시도하고 있다.⁸³

82 『明報』, 2018년 12월 21일.

83 중국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는 기동함대를 건설하여 대만과 남중국해 사태에 미 해군 항모타격단(CSG)의 개입을 저지하고, 자국 해군의 인도양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중동에서의 에너지 수송로 보호를 임무로 한다.

81 James R. Holmes and Toshi Yoshihara,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s Rise and the Challenge to U.S. Maritime Strateg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0) 참조.

중국은 이를 위해 2012년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을 취역한 데 이어 2018년 5월에는 중국의 독자기술로 제작된 두 번째 항공모함(001A)이 다롄(大連)에서 시험운항에 나섰으며, 2020년 경에는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항공모함 역시 상하이 장난(江南)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으며, 새로 건조되는 항공모함의 경우 배수량이 8만t에 달하고, 첨단인 '전자식 사출장치(EMALS)'가 구비될 것으로 중국의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⁸⁴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001A함)이 6만 5천t급 배수량에 스키점프식 이륙방법을 채택한 데 비해 현재 건조 중인 세 번째 항공모함은 규모가 더 크고 선진 기술을 채택한 셈이다. 또한 중국이 언젠가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것은 중국 해군의 원양 작전능력과 원해 타격능력을 크게 증강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⁸⁵

중국해군은 항공모함 건조를 통한 '힘의 투사'를 해군 현대화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항공모함 호위전력 구성의 일환으로 Type-052D형 시닝(西寧)함 및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인 055형 난창(南昌)함을 다수 건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홍콩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만재 배수량 1만 3000톤급에 달하는 최신예 055형 미사일 구축함을 이미 4척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척이나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

다. 중국의 주력 구축함이 될 055형 구축함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배수량이 크고 무장도 강하며,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한미일의 구축함을 압도할 정도의 전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⁸⁶

한편 이와 더불어 중국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은밀한 해양작전과 '보복타격능력(second strike)'을 한 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 중국은 현재 해마다 두 척 이상 최신형 잠수함을 건조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은 대략 60척으로서 이 중에서 전략핵잠수함(SSBN) 4척,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6척, 디젤잠수함 50척 등이다.⁸⁷ 중국은 특히 쥐랑-2(JL-2)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12발 탑재할 수 있는 094형 진(晉)급 전략핵잠수함과 093형 상(商)급 핵공격잠수함을 통해 상호확증파괴(MAD)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20년까지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차세대 전략핵잠수함 096형 잠수함 4~5척과 여기에 탑재할 쥐랑-3(JL-3)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할 예정이다.⁸⁸

또한 중국해군은 국방개혁 과정에서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육전대(해병대) 증강과 상륙함 건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과거 약 1만 명 규모의 2개 육전대 여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84 『環球網』, 2019년 6월 21일. 중국이 만일 현재 건조 중인 항공모함에 전자식 사출기를 채택하게 된다면 함재기 사출 방식에 있어서 항모 원자로의 수증기를 이용한 증기사출식을 건너뛰고, 미국도 2017년 7월 취역한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CVN-78)함에 처음 도입한 전자식 사출기술을 확보한 것이 된다.

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항공모함 운용능력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함재기(J-15)는 미국과 프랑스 함재기보다 무거우며, 14도 스키점프 방식에 의해서는 탑재 무장이 지상용의 1/2 정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국 해군 미래 중장기 항모 및 함재기 발전계획," 『KIMA뉴스레터』, 제 583호 (2019.8.27).

86 CNN, July 17, 2018.

87 중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국가별 통계가 조금씩 상이하다. 이 글에서는 미 국방성이 발간한 '중국군사력보고서 2019'를 참고로 했다.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p. 116.

88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관은 "핵잠수함은 중국의 비장의 카드이자 강대국 지위를 상징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전략적 힘"이라면서 "우리의 적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훈, "아태 각국의 잠수함 경쟁," 『월간조선』, 2015년 1월.

를 6개 여단으로 확충하여, 동부전구(2개), 남부전구(2개), 북부전구(2개) 등에 분산 배치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7개 여단 3만 명 이상의 규모로 증대할 계획이다.⁸⁹ 아울러 상륙기동단 구성에 필수적인 강습상륙함 Type 071형 LPD 7척을 최근 건조하였고, 현재 4만 톤급 Type 075 LHA도 건조하고 있다. 지휘계통도 국방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중앙군사위-4대총부-군구-함대사-해병대' 구조에서 '중앙군사위-전구사-육전대'의 3단계로 간소화하였다.⁹⁰

중국의 해군 현대화와 힘의 투사능력 강화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해외기지의 확보이다. 중국해군은 2017년 7월에 확보한 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 해외기지를 중심으로 인도양과 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등에 해외군사기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부티 기지에 이어 호주 다윈, 스리랑카 함반타토, 파키스탄 과다르 등에 장기 임대한 중국 민간물류회사의 전용부두를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중국해군 함대사령부

Major Naval Units



자료: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p. 32.

89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Washington D.C.: DoD, 2018), p. 28.

90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국해군의 미 해군 따라가기 전략 개념과 평가," 『KIMA뉴스레터』, 제553호 (2019.7.10).

2. 공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군은 병력 수(39만 8천명)로는 세계 최대이며 구식 항공기를 포함하면 2,500여기가 넘는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항공우주일체와 공방겸비(空天一體, 攻防兼備)의 현대공군”이라는 전략개념에 따라 최근 들어 공세적이고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정보화 작전 요구에 부합하는 항공우주방어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조기경보·공중타격·공중 및 미사일 방어·對 정보·공수작전, 전략수송 및 종합지원 능력의 향상을 통해 이른바 ‘전략 공군’을 추구하고 있다.⁹¹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공군의 전략목표는 첫째, ‘핵심이익’지역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공중작전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공군은 우선적으로 대만해협, 티베트, 신장,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지에서 공중작전 능력 구비에 힘을 쏟고 있다. 둘째, 해군과 연계하여 제 1,2도련선 범위 내에서 적의 공중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접근거부 및 지역거부전략에서 해군과 더불어 공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우주자산을 이용한 지휘통제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인공위성 등 우주정보자산의 확충과 효과적 활용능력을 구비하고자 한다. 넷째, 한반도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⁹² 중국공군은 작전능력의 배가를 통

해서 역내 및 주변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행사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중국 공군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공군전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제약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공군은 첨단 전투기 등 무기 구매 및 첨단 기술 도입의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對)공산권 제재로 인한 선진 기술과 첨단무기 도입의 한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러시아에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심이 커지면서 부분적으로 첨단무기 판매와 기술 이전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은 국방부문의 관료주의적·정치적 조직문화로 인해 효율성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있으며, 국방공업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군은 최근 들어 획기적인 수준의 발전 현황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주력 전투기는 구소련에서 수입한 Su-27, Su-30 계열과 중국 자체로 독자 개발한 J-10, J-11, J-16 등으로 1,000여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 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는데,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동부전구를 필두로 실전 배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FC-31은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중국 해군이 차기 함재기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⁹⁴

중국에서 생산된 전투기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냉전시대의

9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北京: 人民出版社, 2015).

92 중국 공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DIZ)에 대한 침범이 잦아지는 이유도 결국은 중국 공군의 작전 반경 확대와 영향력 확대 의도가 투영된 것이다.

93 때문에 시진핑은 국방개혁의 중점 가운데 하나로 군민융합(軍民融合)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중양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직접 주임을 맡았다. SCMP, January 23, 2017.

94 스텔스 전투기의 실전 배치는 미국의 F-22(2006년), F-35(2015년)에 이어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배치했다. 한편 러시아는 F-22의 대항마로 개발한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 Su-57을 2019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소련기술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체 개발 전투기 J-10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러시아로부터는 Su-30과 같은 4세대 첨단 전투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미라주 2000에 비견되는 전투기 J(殲)-10을 자체 개발해 2006년부터 실전배치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 도입한 Su-33을 모델로 항공모함 탑재기용 전투기인 J-15를 자체 개발하였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2세대 또는 3세대 전투기 수준에 불과하던 중국공군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짧은 시간에 독자적으로 제4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⁹⁵

또한 중국은 2011년 1월 자체 개발한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의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부터 동해전구를 필두로 실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J-20의 시험 비행 당시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의 방중에 맞춰 공개하는 등 상당히 공세적으로 공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다.⁹⁶ 또한 중국은 자체 개발한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FC-31을 2014년 주하이(珠海) 에어쇼에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의 독자적인 5세대 첨단전투기 개발은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서 중국의 일부 군사기술은 미국의 턱 밑까지 따라왔음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이 보유한 J-20은 미국의 F-22 랩터와 비교하면 아직도 뒤처지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이 이루어질 경우 언젠가는 미군의 공중우세에 심각한 도전

을 제기할 수도 있다.⁹⁷

이외에도 중국공군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조기경보통제기 ‘콩징(空警)-2000’과 공중급유기 ‘홍유(宏油)-6’, ‘Y-8 조기경보기’, ‘Y-9 정찰기’ 등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B-52에 필적하는 ‘전략 폭격기 H-6K와 H-6N’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에 대응하기 위한 스텔스 ‘전략폭격기 H-20’을 개발하고 있다.⁹⁸ 이처럼 중국공군이 적극적으로 첨단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 보유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핵심이익지역 내에서 독자적인 공중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공군은 이와 더불어 해군과 연계하여 제1도련선은 물론이고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 내에서 적의 공중 접근 거부를 위한 A2/AD능력을 구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무인기개발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자체적인 무인기를 개발하여 무인항공기를 운용중이다. 중국은 베이징 부근 통저우(通州)에 무인정찰기 12대로 구성된 대규모 드론 기지를 운용중이다. 또한 남부지방의 광둥(廣東)성 메이저우(梅州)에도 전술무인기를 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무인기(드론)기술을 이용해 2013년에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스텔스무인기 시험비행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이

95 중국이 적극적으로 공군력 현대화를 추진한 데에는 2001년 4월 1일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섬 부근에서 미군 정찰기와 충돌사건으로 중국 전투기조종사가 사망한 사건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SCMP, April 3, 2019.

96 “후진타오, 스텔스기 젠-20 15분간 날았다,” 『조선일보』, 2011년 1월 12일.

97 중국공군의 현대화과정에 대한 주요 국내문헌으로는 다음을 참조. 조관행·홍성표, “중국 군사혁신(RMA)에 따른 중국공군 현대화와 한국공군에 주는 함의,” 『현대중국연구』, 제12권 2호 (2010), pp. 1-40; 이성훈, “중국공군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안보,” 『국가안보전략』, 제16권 2호 (2016), pp. 117-150.

98 중국의 전략폭격기 H-6K는 2015년부터 제1도련선을 돌파해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괌(Guam)에 대한 공격을 상정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H-20은 항속거리 8500km 이상으로써 향후 서태평양 제공권 장악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Washington D.C.: DoD, 2019), p. 41.

후 중국은 꾸준히 무인기를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보다도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형 스텔스 무인항공기 CH-7을 개발하였다.⁹⁹

〈그림 6〉 중국공군의 배치 현황

Major Air Units



자료: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p. 35.

99 중국의 무인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ael S. Chase, *Emerging Trends in China's development of Unmanned System* (Santa Monica: RAND, 2015).

3. 로켓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가. 로켓군 발전의 역사적 배경

중국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로켓군은 적을 향한 전략 위협의 핵심전력으로서 핵탄두 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 부대이다. 시진핑 시기 군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로켓군' 창설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로켓군은 현대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로켓군의 전신은 제2포병으로써 1966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창설 되었다. 로켓군은 시진핑 시기 국방개혁을 통해 독립 군종으로 자리 잡았지만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지휘·통제하는 전략부대이다. 로켓군의 임무는 중국에 대한 타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핵 반격 및 재래식 미사일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것이며, 핵 미사일부대와 재래식 미사일부대, 작전보장부대, 관할 미사일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⁰

중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역사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과 소련은 1957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소련은 약 100명의 전략 로케트부대 병력을 파견하여 중국에 기술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중소 갈등이 고조 되면서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교류가 단절 되었다. 이후 중국은 자체적으로 미사일개발을 지속했고, 1959년 9월 10일 러시아제 로켓(R-2)을 개량하여 중국 최초의 액체연료 로켓인 동풍(東風)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10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新時代的中國國防』(北京: 人民出版社, 2019).

이를 계기로 중국인민해방군은 1959년에 5개의 포병대대(Artillery Battalion)를 창설하게 되는데, 먼저 802 포병대대가 신설되었고, 1961년도에 801, 803, 804, 805 포병대대가 선양, 베이징 그리고 산둥성 지난 등에 창설되었다. 당시 설립된 다섯 개의 포병대대(the Old Five)는 사실상 제2포병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탄도 미사일 역량 강화를 배경으로 1964년에 다섯 개의 포병대대가 ‘연대(regiments)’로 격상되었고, 1966년 7월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CMC)는 ‘제2포병’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핵무기탑재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하였다.¹⁰¹

1960년대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더불어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미사일을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병종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중국은 1971년에 사정거리 10,000km 이상의 미사일 DF-5(東風-5) 개발에 성공하는데, 이는 중국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의 모태 역할을 하게 되었다.¹⁰² 한편 DF-5 개발로 중국은 당시 소련 모스크바와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¹⁰³ 한편 개혁개방시기인 1985년에 제2포병 연대는 다시 여단(Brigade)으로 확대·재편성되었는데, 801여단이 처음으로 DF-5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

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포병여단이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을 원활하게 구비·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표 5〉 제2포병부대 현황: 6개기지 및 23개 미사일여단¹⁰⁴

구분	예하 여단 및 미사일 유형
제51기지 (4개 여단)	206여단(섬서, 한성, DF-21), 810여단(대련, DF-3), 816여단(통화, DF-21), 820여단(산둥, 래무, DF-31)
제52기지 (7개 여단)	807여단(안휘, 기문, DF-3), 811여단(안휘, 석태, DF-21), 825여단(강서 낙평, DF-15), 817여단(북건, 영안, DF-11), 819여단(광둥, 매주, DF-11), 821여단(강서, 간주, DF-15), 823여단(절강, 금화, DF-15)
제53기지 (3개 여단)	802여단(운남, 건수, DF-3/21), 808여단(운남, 초문, DF-3/21), 822여단(운남, DF-21)
제54기지 (3개 여단)	801여단(하남, 영보, DF-4), 804여단(하남, 란천, DF-5A), 813여단(하남, 남양, DF-5)
제55기지 (3개 여단)	803여단(호남, 청주, DF-4), 805여단(호남, 통도, DF-5A), 818여단(호남, 회동, 동풍-5A)
제56기지 (3개 여단)	809여단(청해, 대통, 동풍-3), 812여단(청해, 덕령합, 동풍-4/21), 814여단(청해, 대자단, 동풍-5A)
기타	22기지(섬서 보계, 훈련기지/예비기지), 28기지(길림 청우, 훈련기지)

한편 시진핑 시기 국방개혁을 통해서 2016년 1월부터 제2포병이 ‘로켓군(Rocket Force)’으로 개편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핵과 미사일역

101 제2포병의 총지휘본부인 베이징시 청허(淸河)에 위치하고 있다.

102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1970년 4월 자체기술로 발사한 인공위성 ‘동방홍(東方紅) 1호’를 개발하면서 습득한 로켓 기술이 모태가 되었다. 박병광, “중국 우주개발의 의미와 영향: 정치·군사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p. 38.

103 John Wilson Lewis and Hua Di, “Chin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Technologies, Strategies, Goals,” *International Security*, Vol.17, No.2 (Fall 1992) 참조.

104 주상병, 『중국군 제2포병부대 작전능력 연구』 (대전: 육군대학, 2010), p. 19 참조. 동 자료는 로켓군 창설 이전 제2포병부대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참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표로 첨부하였다.

량을 직접 통제하면서 미사일 및 핵전력(Nuclear Force)을 강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¹⁰⁵ 요컨대 로켓군은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군통수권자의 자격으로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공을 들여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중국의 핵과 미사일은 최고지도부의 의중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군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⁶

한편 인민해방군의 제2포병이 로켓군으로 격상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자율성이 증대되고 기동성과 민첩성을 유지하면서 실전에 준비된 부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2포병은 합동훈련과 운용에 대한 이론적 부분에 집중했다면 로켓군은 실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있어서 로켓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정미사일 (liquid-fueled stationary missiles)이 주를 이루었으나, 군사현대화에 힘입어 최근 중국 미사일의 경우 고체연료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운반체를 동반하기에 기동성이 뛰어난 특징을 지니고 있다.¹⁰⁷

105 『新華網』 2016年, 1月 1日: Shannon Tiezzi, "The New Military Force in Charge of China's Nuclear Weapons," *The Diplomat* (January 5, 2016).

106 David C. Logan, "Making Sense of China's Missile Forces," in Phillip C. Saunders, Arther S. Ding (eds), *Chairman Xi Remakes the PLA: Assessing Chinese Military Refor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9), p. 412-413.

107 David C. Logan, "Making Sense of China's Missile Forces," p. 406

나. 중국의 로켓군 현황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지휘를 받는 로켓군의 병력은 약 13만 명이고, 지휘본부는 베이징 교외의 칭허(清河)지구에 위치한다. 로켓군의 주요 조직은 사령부, 정치부, 후근부, 장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켓군의 주요 기지는 육군의 집단군과 동일한 등급이라 할 수 있으며, 51기지부터 56기지까지의 6개 기지는 수개의 여단을 관할하고 있으며, 22기지는 기술과 지원에 관한 훈련기능을 주로 하고, 28기지는 작전을 위한 훈련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로켓군은 5개의 직속 연구소와 4개의 교육기구를 보유하고 있다.¹⁰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하는 연감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말 현재 약 26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⁹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 구비에 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핵탄두와 핵미사일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에 관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통계와 평가는 다소 상이한 측면을 면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이미 미국과 러시아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로켓군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로켓군이 보유하는 주요 단거리 미사일은 DF-11, DF-15, DF-12, DF-16, DF-18 계열이다. DF-11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2포병부대의 주요 전술작전무기로

108 中共研究雜誌社, 『2017 中共研究』 (臺北: 中共研究雜誌社, 2017), p. 3-85.

109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orld Nuclear Forces," *SIPRI Year Book 2015*.

서 기능해 왔으며, 사정거리와 중량 등 성능을 개량하여 DF-11A형으로 발전하였다. DF-15는 2000년대 이전까지 제2포병의 주력 단거리 미사일로서 중국이 약 400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술발전을 통해 현재는 DF-15A, DF-15B, DF-15C 등으로 진보하고 있다. 이외에 DF-12, DF-16, DF-18 등도 주요한 단거리 무장 역량이다.

로켓군의 중거리 미사일로는 DF-3, DF-4, DF-21, DF-25, DF-26 계열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DF-21계열은 사거리 약 1,800km 이상으로서 DF-21A, DF-21B, DF-21C, DF-21D 등으로 진화해 왔으며, 특히 DF-21D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한 지대함 미사일로 발전하여 최근에 개발한 DF-26 지대함 미사일과 더불어 중국의 A2/AD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로켓군의 장거리 미사일(ICBM)로는 DF-5, DF-31, DF-41 등이 주력을 형성하고 있다. DF-5는 로켓군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사거리(1만5,000km)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의 대부분을 타격목표로 삼을 수 있다. DF-31과 DF-41 역시 최소 1만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TEL을 이용한 발사가 가능하다. DF-31의 개량모델인 DF-31A는 2015년에 이미 5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⁰

중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11대에 이르는 다수의 항공모함이 없고, 현재는 단 2대만 보유한 상황이지만, 세계 최강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당한 억제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로켓군이 약 200여기의 ICBM, 300여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1,150여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3,000기의 순항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¹¹¹

중국의 미사일 전력의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는 항공모함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무기일 뿐 아니라 미중간 힘의 균형에 적잖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비행체가 더욱 가시적인 발전과 기술적인 성과를 이루게 된다면, 이는 국제질서 변화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¹¹² 한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갈수록 중국과의 미사일 격차(Missile Gap)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¹³ 그리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소련과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폐기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중국의 가시적인 미사일 전력 강화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재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급속한 군사력격차 축소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핵무력 강화를 통한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거나, 극초음속 무기(Hypersonic

111 David Lague and Benjamin Kang Lim, "The China Challenge: Rocket Man," Reuters Investigates (April 25, 2019).

112 중국인민해방군은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2019.10.1.) 퍼레이드에서 사거리 2,500km의 DF-17 극초음속 활공형(HGV) 순항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113 Michael Pillsbury, *The Hundred-Year Marathon: 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n as the Global Superpower* (New York: Henry and Holt Company, 2015).

110 中共研究雜誌社, 『2017 中共研究』(臺北: 中共研究雜誌社, 2017), p. 3-86~3-87.

weapon), 또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무기개발을 통해 절대적 군사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문제는 중국 역시 2018년에 극초음속 비행체(hypersonic glide vehicles)인 '싱공2호(星空二号, Starry Sky-2)'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¹¹⁴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INF조약을 탈퇴한 데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제2포병부대 배치도



¹¹⁴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p. 44.

4. 우주군사력 현대화와 발전

가. 우주군사전략 개념과 목표

중국의 21세기 군사전략 변화와 군 현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우주군사력의 증강 및 우주(군사)전략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이처럼 우주군사화 및 우주전략의 완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대전에서 특히 중요한 정보전(情報戰)의 결정적 관건은 우주에서의 전력 우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¹¹⁵ 중국은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전략국경'이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과거 영토, 영해, 영공을 의미하던 '지리적 국경'을 뛰어넘어 향후 우주가 새로운 전략적 보고로 부상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¹¹⁶ 때문에 군사용 우주개발에 관한 권한이 공군에 부여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에서 담당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군사력 발전의 방향을 '정보지원(information support)'과 '실제전투(battlefield combat)'의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실제전투 능력 확보에 앞서 먼저 정보지원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¹¹⁷ 한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섭게 성취되고 있는 중국의 우주개발 성과 역시 우주군사력의 발전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에서

¹¹⁵ CNA Conference Report, *China's Space Program: Civilian, Commercial, & Military Aspects*. (Alexandria, VA: CNA Cooperation, 2006), pp. 11-12.

¹¹⁶ 『解放軍報』, 1987년 1월 4일.

¹¹⁷ You, Ji, *The Armed Forces of China* (London: I.B. Tauris & Co Ltd, 1999), pp. 83-84.

는 우주군사전략(太空軍事戰略)의 목표, 수단 그리고 우주군대에 관한 개념 및 구상 등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중국 우주군사전략의 개념과 위상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중국의 유명 군사학교 중 하나인 스자좡(石家莊)육군대학의 학장이자 육군 소장(少將)인 쉬허젠(許和震)에 따르면 “우주군사전략은 우주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우주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우주작전(太空作戰)이라 함은 적대적인 쌍방이 우주공간에서 또는 우주공간을 이용하여 군사적 대항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¹¹⁸ 중국은 이와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탄도탄 탐지, 군사통신, 반위성무기(ASAT)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한 우주군사전략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우주군사전략’이 ‘국가전략’과 ‘국방전략’의 하위개념이지만 그것이 일반 군사전략의 하위개념은 아니며 동등한 수준에서 독립적인 군사전략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우주군사전략은 일반군사전략과 달리 국가전략의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평가는 핵(核)전략이 군사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우주군사전략이 더 중요한 국가전략의 구성요소라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¹¹⁹

이처럼 우주군사전략과 핵전략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중요성과 인식의 차이는 비록 우주군사전략이 현대 핵전략의 기초 하에 만들어진 새로운 전략적 관념이지만 핵전략에 비해 우주군사전략은 더욱 분명하고

폭넓은 전략적 범주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핵전략에 비해 우주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의 전체적 목표는 물론 첨단기술정책, 국방현대화, 국방산업체제, 국제외교 등 파급영향과 범위가 폭넓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과 살상력으로 인해 실제 전쟁과정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반면 우주무기는 언제든지 제한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우주작전의 현실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¹²⁰

다음으로 중국의 우주군사전략이 추구하는 목표를 살펴볼 것 같으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적 태세’로서의 목표를 의미한다. 중국은 전략적 수단과 태세로서의 목표달성에 바탕을 둔 우주군사전략의 완성을 추구함으로써 ‘우주경쟁(space race)’은 물론 미래의 ‘우주전쟁(space war)’에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¹²¹

중국의 우주군사전략이 의미하는 ‘전략적 수단(戰略手段)’이라는 것은 우주군사력 건설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주전략의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략적 수단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째는 전략적 투사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전략정찰, 예방경고, 핵폭발 탐측 및 우주관제 등 방면에서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우주군사전략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된다. 둘째는 효과적인 타격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주발사체의 항공

118 許和震, 『作戰方式的革命性變化』(北京: 解放軍出版社, 2004), p. 243.

119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제15권 4호 (2009), p. 42.

120 張健志·何玉彬, 『爭奪制天權』(北京: 解放軍出版社, 2008), pp. 181-187.

121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p. 42.

탐재능력, 지상과 우주사이의 왕복능력, 우주무기의 살상과 파괴능력 및 정확한 유도능력 등 다방면의 목표와 요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우주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요 기반을 형성할 뿐 아니라 기술적인 난이도가 가장 높고 향후 재정수요 역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는 적절한 시기에 신속한 반응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휘통신체계의 통제능력, 우주전장에 대한 관제능력 및 우주에 관한 종합적 정보화 처리능력과 무인우주정거장에 대한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능력 등을 포함한다.¹²²

한편 중국의 우주군사전략이 추구하는 목표로서의 ‘전략적 태세(戰略態勢)’란 우주군사역량의 직접적인 체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핵심 요소로 한다. 우선 첫째는 우주군사전략 목표의 제1단계로서 우주공간에서 지구에 대한 제천권(制天權)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구에 대한 전략적 통제능력 즉 ‘연성공격능력(soft attack)’과 더불어 지구에 대한 전략적 공격능력 즉 ‘강성살상능력(hard attack)’을 포함한다. 둘째는 우주군사전략 목표의 제2단계이자 우주군사전략의 핵심 목표인 우주공간에서의 제천권(制天權)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우주선을 비롯하여 인공위성 등 자국의 우주기기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대기권을 넘나들고 우주를 비행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의지에 따라 타국의 우주활동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는 우주군사전략 목표의 제3단계로서 달(月球)에 대한 제성권(制星權)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사시 민첩하게 움직여 달을

점령하는(捷足先登 搶占月球) 것이다.¹²³

물론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중국의 우주군사전략이 미래의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확고하고 구체적인 형태의 군사전략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¹²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적 우주개발경쟁과 중국 자체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따라 중국 내에서 우주군사전략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내에서의 우주군사화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초보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르고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나. 중국의 우주전력 현황

중국은 자국의 우주무기 개발 등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해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은 없으나 이미 상당한 정도의 우주전력을 보유하거나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⁵ 이는 중국이 일찍부터 우주의 전략적 가치에 눈을 뜨고 국력을 이 분야에 집중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리적 국경’은 고정된 것이지만 ‘전략적 국경’은 우주를 선점함으

123 張健志·何玉彬, 『爭奪制天權』, p. 194.

124 Kevin Pollpeter, "The Chinese Vision of Space Military Operations," James Mulvenon and David Finkelstein, *Operational Arts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Alexandria, VA: CNA Cooperation, 2005), pp. 352-354.

125 Ashley J. Tellis, "China's Military Space Strategy," *Survival*, Vol.49, No.3 (2007), pp. 41-72; Bruce W. Macdonald, *China, Space Weapons and U.S. Security* (New York: CFR, 2008).

122 張健志·何玉彬, 『爭奪制天權』, p. 193.

로써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우주개발과 우주전력 증강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²⁶

오늘날 개발되고 있는 우주전력의 주요 대상으로는 우주공간(대기권)을 통과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군사용 위성시스템 그리고 이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인공위성요격체계 즉, 반(反)위성무기(ASAT), 우주전투기를 포함하는 고차원적 우주항공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¹²⁷ 중국의 우주전력 발전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우주무기의 일종인 반(反)위성무기(ASAT)체계의 개발, 우주감시체계의 일종인 자체적 위성항법시스템(GNSS) 구축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우주군대(天軍)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중국이 우주전력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추진성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¹²⁸

예를 들어서 반위성무기(ASAT)의 경우 중국은 지난 2007년 1월 11일 지상에서 KT-1 미사일을 발사하여 865km 상공에 떠 있는 자국의 기상 위성 '평원-1C(FY-1C)'를 격추하는 데 성공하였다.¹²⁹ 중국은 반위성무기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통신첩보수집, 전장감시 등 군사적으로 활용되

는 우주자산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반위성무기 공격으로 미국이 첩보위성이나 정찰위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결국 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보유하는 기상위성이나 통신위성의 상실 역시 군부대에 의한 지휘통제 능력의 상실과도 연결된다.

중국은 그 동안 다양한 반위성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 여기에는 지상발사미사일로 우주상공의 목표 위성을 파괴하는 방법 뿐 아니라 공중의 무기체계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나 에너지 빔을 이용하는 방법, 공격용 위성을 발사하여 주변의 위성들을 공격하는 방법, 모(母)위성에서 발사되는 초소형 기생위성(parasitic satellite)을 표적위성에 달라붙게 하여 폭파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단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⁰ 중국이 추구하는 반위성무기 체계의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대비되는 저비용으로 복합적 상황에서 완전한 형태의 위성요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¹³¹

다음으로 중국은 우주군사력 건설 차원에서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최초의 위성항법체계는 미국이 1970년대 후반에 국방부의 주도하에 군사적 필요에 의해 개발된 GPS가 가장 대표적이다. 미국의 GPS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과 목

126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전략국경'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과거 영토, 영해, 영공을 의미하던 '지리적 국경'을 뛰어넘어 향후 우주가 새로운 전략적 보고로 부상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解放軍報』1987年 1月 4日.

127 Bob Preston, *Space Weapons: Earth Wars* (Santa Monica, CA: RAND, 2002), pp. 23-49.

128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p. 44.

129 중국의 위성요격(ASAT)실험은 이미 과거에도 실시된 바 있는데 미국 정찰위성은 2005년 7월과 2006년 2월에도 중국의 ASAT 실험을 모니터링 한 바 있다. John J. Tkacik Jr., "Beijing's Intentions in Space," WebMemo #1431, Published by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25, 2007, 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wm1431.cfm (검색일: 2019.8.5.)

130 Michael P. Pillsbury, *An Assessment of China's Anti-Satellite and Space Warfare Programs, Policies and Doctrines*, Report Prepared for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 January 19, 2007; Shirley Kan, *China's Anti-Satellite Weapons Test*,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23, 2007 참조.

131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p. 46.

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미국 국방부는 1994년에 32기의 GPS 위성체계를 구축하였고 1995년부터 민간에도 개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도 처음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GPS를 활용하였지만 위치정보를 미국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은 우주군사전략 차원에서 자체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의 개발에 뛰어 들었다.¹³²

중국은 이미 1차 사업으로 4개의 항법위성을 발사하여 2007년에 중국 대륙을 서비스권으로 하는 ‘베이더우-1(北斗-1)’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제한된 적용범위를 뛰어넘어 GPS처럼 지구 전역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항법위성이 필요하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약 30기에 달하는 정지·비정지궤도 항법위성을 우주상공에 쏘아 올려 독자적 위성항법체계인 ‘베이더우-2(北斗-2)’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¹³³

중국이 독자적으로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미국이 통제하는 GPS에 의존할 경우 전시(戰時)에 서비스 중단과 기능의 왜곡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가안보와 정보주권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 구축을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은 우주군사전략의 차원에서도 독립적인 위치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주군사력 건설의 기초가 된다고 보고 있다. 원래 독자적인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시도는 이미 21세기 초부터 EU(Galileo System)와 러

시아(Glonass System)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EU와 러시아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은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반면 중국은 국가안보에 따른 분명한 추진 목표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중국이 EU와 러시아를 제치고 먼저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다.

한편 중국은 우주전쟁이 아직은 개념상의 것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우주전력 강화 차원에서 독립된 ‘우주군(天軍)’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군이 등장하고 핵무기와 운반로켓의 개발에 따라 미사일부대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주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주군(天軍)의 등장은 불가피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한다.¹³⁴ 실제로 미국은 이미 1982년 북미우주항공방위사령부(NORAD) 산하에 우주통합사령부(U.S. Space Command)를 창설한 바 있다. 나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9일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주군대(space force)를 새로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2018년 8월 9일 ‘우주군 창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국방부를 찾아 우주군 창설 방침을 공식 천명하기도 했다.¹³⁵

중국이 구상하는 우주군은 첫째, 전군에 통신·정찰을 지원하는 부대

132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p. 47.

133 李東撤, “共軍‘空天一體’戰略發展評估,” 『中共研究』 第45卷 12期(2011), p. 93.

134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은 육·해·공군·로켓군·전략지원부대의 5대 군종체제로 유지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우주군이 또 하나의 군종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은 현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 경비대 등 6개의 병과를 두고 있지만 여기에 우주군을 새로 편성해 모두 6개의 병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35 *Washington Post*, August 9, 2018.

를 구축하고 둘째, 우주·공중·지상목표를 격파하는 타격부대를 설립하며 셋째, 전략미사일을 운용하는 미사일부대를 강화하고 넷째, 군사정보 수집과 사이버전쟁을 담당하는 부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우주군 발전방향은 1단계(2000-2015)에서 육지, 해양, 우주공간을 포괄하는 군사용 정보·통신체계를 자주적으로 건설하고, 2단계(2016-2030)에서는 효과적인 위성무기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우주무기체계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며, 3단계(2031년 이후)에서는 우주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¹³⁶

중국이 우주군 창설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우주전쟁(space war)’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주전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국제적 우주경쟁이 가속화되고 21세기 전쟁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우주군사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중국의 우주전력 증강 시도에 따른 우주군의 창설도 갈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6〉 중국의 우주전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성	통신, 정찰, 조기경보, 항법위성 등 100기 이상 운영 중
로 켓	창정(CZ) 등 14여 종 개발운영 중
우주무기	지상, 우주배치 레이저무기 개발 중
탄도탄(ICBM)	DF-5A, DF-31, DF-41 등 200기 이상 보유
감시체계	지상관제 광학 및 레이더 감시체계 운영 및 우주기반 위성추적체계 개발 중

〈표 7〉 중국인민해방군의 첨단무기

신형무기	개발과 배치상황	제원과 성능	비고
094형 진(晉)급 전략잠수함	현재4척 배치, 4-5년 내 4척 추가배치	사정거리 8,000km JL(巨浪)-2 핵탄두 미사일 12기 탑재	차세대 전략핵잠수함 096형 개발
항공모함	2020년까지 재래식항모 2척, 2030년까지 원자력항모 2척 보유 추진	6만 5,000톤급의 경우 전투기 40대 이상 탑재가능	2012년 9월 25일 최초의 항모(랴오닝) 정식취역
J-15, J-20 전투기	실전배치 중	작전반경 1,500km이상, 스텔스전투기(J-20), 항공모함 탑재용(J-15)	2006년 전투기 J-10 독자개발완료, 이미 65대 실전배치
DF-21D/DF-26 미사일	2013년 실전배치	사거리 1,500km 이상의 항공모함 킬러	美항모 공격용으로 개발
DF-41	2017년 실전배치	사정거리 15,000km 최장거리 다탄두 미사일	미사일 발사 후 30분 내 미국대륙 도달
우젠-8	중국의 드론 기술을 집약한 초음속 드론	마하3.3인 미국의 군사용 드론 D-21보다 더 빠름	광 포함 서태평양 지역까지 비행 가능

136 高岩, “中國太空戰略的發展方向,” 『廣角鏡』, No.374 (2003년11월), p. 9.

V

결론 : 파급영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1.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대한반도 파급영향
2. 우리의 대응방향

1.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대한반도 파급영향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의도하는 바는 자국의 필요에 따른 ‘힘의 투사력(power projection)’을 구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의도하는 경쟁대상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지 한국이 직접적 목표나 대상(target)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비 증액과 군사력 팽창은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간과할 수 없는 파급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¹³⁷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파급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수 있겠다.

첫째, ‘한반도 안보균형점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전반적인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70여 년간 한국은 정치, 외교는 물론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체제 속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구현해 왔다. 그러나 1992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식 수교를 맺은 뒤, 2008년에는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韓中戰略合作伙伴關係)’로 격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미·중관계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와 ‘한미동맹관계’의 이중구조 속에서 한국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양

¹³⁷ 일례로 중국 군용기의 한국 측 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무단 침입은 횡수와 규모면에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택일(兩者擇一)의 선택을 강요받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안보균형점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잠재적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겠다.

둘째, 동아시아 전역에서 불균형적 세력 분포를 형성함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군비증강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급속한 첨단무기 개발 및 도입 그리고 군사비 지출의 확대는 주변 국가들의 경계심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심이익’의 강조는 일본과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영토·영유권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의 군비증강을 자극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 ‘이어도’를 비롯한 서해 및 남서해상에서 잠재적 영유권 갈등 가능성에 놓여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몰아치는 군비증강의 파고 속에서 예외로 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군비증강은 한반도의 군비증강과 그에 따른 안보불안정 요소를 더 많이 파생시킬 수 있다고 보겠다.

셋째, ‘동맹비용부담의 증가’로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국 부담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것이며 이에 따른 우리의 비용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힘의 상대적 쇠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역할 및 군사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제부국에 대한 부담증액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팽창위협이 증대되고 군사력 증강이 가속화될수록 한국이 떠맡아야 할 동맹비용부담의 증가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넷째, ‘한반도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증대시킨다고 하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미중대결구조 및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북중 군사동맹을 고착화시키거나 북한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가능성을 고조시킴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중국 군부의 자신감이 고조될수록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군의 군사적 개입을 더 강력하게 고려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장차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며,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간 군사협력을 더욱 긴밀화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구에 부정적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외교적 측면에서 ‘한·중 호혜평등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중간 비대칭적 군사력 발전은 양국 간 갈등사안 발생 시, 중국이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를 취하도록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건강한 양국 관계란 상호 주권과 국익에 대한 존중 속에서 호혜평등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때,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와 맞물리면서 ‘힘의 외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족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이웃 국가에 대한 배타적 적대감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민족주의 고조는 한중관계의 호혜평등관계를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한중간에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사안에

따른 마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¹³⁸ 한국과 중국은 양국관계의 빠르고 폭넓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문제, 고대사문제, 주한미군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서 잠재적 갈등을 안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남방에 위치하는 '이어도'문제 등은 향후 한중간에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양상에 빠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중국은 한중간에 존재하는 갈등사안이 첨예화될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 한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거나 협상에서의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2. 우리의 대응방향

20세기에 전 세계는 '경제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목도했다면 아마도 21세기는 '군사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목도하고 경악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진 중국이 향후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미래에 관해서 '낙관론'과 '경계론'이 공존한다. 낙관적 시각에서 보자면 중국이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증강하는 것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서구세력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유린된 수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어적 기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은 냉전시기에도 미국과 소련 등 이른바 패권세력으로부터

상당한 안보위협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바라보는 경계론자들은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려 들고 결국은 현상변경(power transition)을 추구함으로써 평화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중국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부강한 중국, 강군의 꿈을 부르짖으며 때로는 남중국해 등 일부 분쟁지역에서 힘의 과시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보는 낙관론자와 경계론자의 시각 차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도주의자들은 미래의 미중관계를 '협력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중국 접근론과 포용정책(engagement)을 주장한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자들은 미래의 미중관계를 갈등적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대중국 봉쇄론(containment)을 주장한다.¹³⁹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가파를수록 미국의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 역시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간 대립과 불신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한국에게 '도전'과 '위협'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군사적 강대국으로 군림하거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를 추구했을 때,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것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역내 세력균형의 변화는

138 한국은 이미 2016년 사드(THAAD)배치를 둘러싼 갈등 당시 이러한 경험을 당한 바 있다. 사드사태의 주요 전개 과정 및 중국의 보복행태와 시사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병광, 『중국의 주변국 경제보복 사례와 시사점』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139 이와 관련된 가장 흥미롭고 대표적인 논쟁으로는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와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의 토론을 다룬 "Debate: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Jan/Feb 2005)를 참조하라.

미국의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령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에게 군사적 부담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미중간 대립의 부산물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어떠한 기조와 전략 하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인식(perception)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한 적대관계를 상정하고는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비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전제이다. 왜냐하면 중국을 적(enemy)으로 간주하거나 적대적 관계로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자극받는 군비경쟁을 지향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방어적 억제전략'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기초위에서 군사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군사분야 신뢰구축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억지전력을 갖추는 것 또한 선택이기보다는 '필수'의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고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직접적으로 미국을 상대하기 보다는 미중 대립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먼저 한국에 대해 점진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확대와는 별개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

적 요소에 대해서도 냉철히 평가하고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주변국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에게 요구되는 것은 '고습도치전략' 또는 '독침전략'이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고습도치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에 대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 보유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함으로써 서해와 한반도 해역을 작전권에 넣고, 우리의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면 한국은 항공모함과 수상함정을 목표로 하는 대함미사일 개발 등으로 맞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⁴⁰ 또한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중국의 공격용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연해지역 중심도시를 사정권으로 하는 크루즈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것도 최소억지력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의 군사력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해군과 공군을 위주로 하는 군사력 건설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아이디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군의 '자강력 확보'와 동시에 '한미동맹'의 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한반도 서해상과 동해상에서의 공세적인 군사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평시에는 중·미, 중·일

140 중국도 미국에 대한 비대칭전략(고습도치전략)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깃으로 하는 DF21-D 대함미사일을 배치한 상태이며, DF-26도 개발을 완료했다.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지만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위협상황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조화롭게 결집시켜 중국 견제의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중국이 동북아질서의 '현상유지'가 아닌 '현상변경'을 추구할 경우,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통한 대중국 견제를 적극 고려해야만 한다. 다만 이럴 경우 향후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을 활용하고 한국의 동참을 더 적극 요구함으로써 미중 경쟁의 한 복판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전략항공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해·공군력의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전략적 군사능력의 투사력 보유를 위해 '제주전략항공기지' 건설의 방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주전략항공기지는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과 '에너지 운송을 비롯한 통항선박 보호', '전략기동함대의 근해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강화되는 중국과 일본의 해·공군 활동을 감시하고,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남방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조난구조 및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공기지를 제주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주전략항공기지는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의 경유기지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F-15K전력이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이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는 물론 남중국해 일부의 공중관할권의 주도적 확보가 가능하다. 제주전략항공기지의 대상 후보지로는 과거 일본군이 사용했던 공군 소유의 대정읍 모슬포 '알프르' 비행장과 민간 기업이 소유한 표선면 가시리의 비행장을 확장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략기동함대' 구성과 '스텔스기'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2019년 7월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영공 침범 및 중·일 센카쿠

(조어도)분쟁의 사례는 우리에게 해·공군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무역의 95% 이상을 해상수송로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북억제는 물론 주변국과의 분쟁을 대비하여 '전략기동함대'의 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의 전쟁은 항공력이 승패를 좌우할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제5세대 전투기 보유 및 확대에 매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스텔스 전투기의 구매 확대와 더불어 '자체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고도 및 고고도 무인정찰기 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한국군의 독자적 전투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감시통제전력으로서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운용은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미 자체개발이 거의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독자적인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능력을 구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인정찰기는 조기경보체제와 함께 JSTARS (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k Radar System)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항공우주작전에서 가장 긴요한 합동작전의 효율성제고에 필수적이다.

다섯째, 군 또는 공군 소유의 독자적인 군사위성 확보를 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군사위성의 종류에는 정찰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GNSS), 기상위성, 공격위성(ASAT)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위성체제는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전적으로 미국의 위성영상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감시능력을 거의 갖고 있

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다목적 위성을 활용한 독자적 위성정찰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아울러 위성영상 수신체계를 구축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공격정보로 활용하고, 임무항공기에 실시간으로 표적정보지원(sensor to shooter)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군 전용의 정찰 및 신호/전자정보 위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가의 소형위성 설계 및 제작기술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 기본적인 우주감시정찰체계를 갖추는 것은 북한 위협 및 주변국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Research on Moderniza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ark, Byung-Kwa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research examines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e trend of modernization and effects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China's rise is already becoming a reality in the military sector beyond the economic realm. For over two decades, the China has been engaged in a grand project to transform its military into a modernized fighting force capable of defeating major foreign powers. It will be eventually change the balance of power that maintains international order. The goal of China's military buildup is to be a major power countries like the US and Japan, not South Korea. However China's military buildup could be a significant security dilemma for South Korea, which maintains a ROK-US alliance. China's modernization of its military forces and

continued points of sharp difference with the US on foreign policy in the Asia-Pacific have increasingly forced the US military and policy communities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a serious confrontation with China. Meanwhile, China's military buildup could ultimately change the security 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reg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 with China, South Korea should exp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China and focus on building mature trust in the military sector.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must develop its self-reliance military build up and consider the effective use of the ROK-US alliance in order to respond to the threats of neighboring major powers such as China. South Korea must have a minimum deterrent to strike any other neighbor major power countries that threatens us, such as hedgehog.

Keywords

China, military build up, PLA,
ROK-US alliance, hedgehog strategy

참고문헌

1. 국문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8.
- 김재엽. “중국의 대주변국 군사분쟁을 통해서 본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특징, 함의.” 『군사』 제106호 (2018).
- 김재엽.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 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 전투까지.” 『한국군사학논집』 제75권 1호 (2019).
- 류해성.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 구사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시사점.” 『삼參』 제80호 (2019).
-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2000년 이후 전력증강 추이 및 지역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73호 (2006).
-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한국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김태호 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파주: 나남, 2008.
- 박병광. “중국 우주개발의 의미와 영향: 정치·군사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2권 2호 (2006).
-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제15권 4호 (2009).
- 박병광.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6권 2호 (2010).
- 박병광.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동북아 안보.” 『국제문제연구』 제11권 3호 (2011).
-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60호 (2013).
- 박병광. 『중국의 주변국 경제보복 사례와 시사점』.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중소연구』 제32권 3호 (2008).
- 심현섭. “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군사』 제103호 (2017).

- 방준영·양정학. “중·일 국방개혁 현황과 한국에의 함의.” 『전략연구』 제25권 2호 (2018).
- 오수열. “대장정(大長征)시기 중공당 내의 노선투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78호 (2016).
- 이동률.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6권 4호 (2012/2013).
- 이성훈. “중국공군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안보.” 『국가안보전략』 제16권 2호 (2016).
- 이재형. 『중국의 해양전략』. 서울: 황금알, 2007.
- 이창형. “중국의 민군융합 통한 지능화군 건설전략.” KIMS Periscope 166호 (2019.8.).
- 주상병. 『중국군 제2포병부대 작전능력 연구』. 대전: 육군대학, 2010.
- 조관행·홍성표. “중국 군사혁신(RMA)에 따른 중국공군 현대화와 한국공군에 주는 함의.” 『현대중국연구』 제12권 2호 (2010).
- 조영남.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2호 (2013년).
-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국해군의 미 해군 따라가기 전략 개념과 평가.” 『KIMA뉴스레터』, 제553호 (2019. 7. 10).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국해군 미래 증장기 항모 및 함재기 발전계획.” 『KIMA뉴스레터』, 제583호 (2019. 8. 27).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국 시진핑의 군사개혁(2016-2017).”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8-02』 (2018. 2).

2. 외국어자료

-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Washington D.C: DoD, 2017.
-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Washington D.C: DoD, 2018.
-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Washington D.C: DoD, 2019.
- Austin, Greg. *China's Ocean Frontier*. NSW: Allen & Unwin, 1998.
- Brooks, Stephen G. and William C. Wohlforth. "The Risa and Fall of the Great Power in the 21st Century: China's Rise and the Fate of America's Global Posi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0, No. 3 (2015/2016).
- Chase, Michael S. *Emerging Trends in China's Development of Unmanned System*. Santa Monica: RAND, 2015.
- Cole, Bernard D. *The Great Wall At Sea: China's Navy Enters the Twenty-First Centur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1.
- Fravel, Taylor M. "China's Search for Military Power."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1, No. 3 (2008).
- Gates, Robert M.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 88, Issue. 1 (Jan/Feb 2009).
- Holmes, James R. and Toshi Yoshihara. *Chinese Naval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The Turn to Mahan*. New York: Routledge, 2008.
- Holmes, James R. and Toshi Yoshihara.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s Rise and the Challenge to U.S. Maritime Strateg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0.
- Kan, Shirley. *China's Anti-Satellite Weapons Test*. CRS Report for Congress, 23 April 2007.
- Kaplan, Robert D.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Vol. 89, No. 3 (2010).
- Lewis, John Wilson and Hua Di. "Chin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Technologies, Strategies, Goal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2 (Fall 1992).
- Macdonald, Bruce W. *China, Space Weapons, and U.S. Security*. New York: CFR,

- 2008.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 Pillsbury, Michael P. "An Assessment of China's Anti-Satellite and Space Warfare Programs, Policies and Doctrines." Report Prepared for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 January 19, 2007.
- Pillsbury, Michael. *The Hundred-Year Marathon: 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n as the Global Superpower*. New York: Henry and Holt Company, 2015.
- Pollack, Jonathan D. "The Changing Political-Military Environment: China." Zalmay Khalilzad, eds.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1.
- Preston, Bob. *Space Weapons: Earth Wars*. Santa Monica, CA: RAND, 2002.
- Saunders, Philip C. and Joel Wuthnow. "China's Goldwater-Nichols? Assessing PLA Organizational Reforms." *Strategic Forum*, No. 294 (July/August 2016).
- Saunders, Philip C., Arther S. Ding, Andrew Scobell, Andrew N. D. Yang, and Joel Wothnow. *Chairman Xi Remakes the PLA: Assessing Chinese Military Refor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9.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orld Nuclear Forces." *SIPRI Year Book*, 2015.
- Tellis, Ashley J. "China's Military Space Strategy." *Survival*, Vol. 49, No. 3 (2007).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2017.
- Tiezzi, Shannon. "The New Military Force in Charge of China's Nuclear Weapons." *The Diplomat*, 5 January 2016.
- You, Ji. *The Armed Forces of China*. London: I.B. Tauris & Co Ltd, 1999.
- Zhan, Jun. "China Goes to the Blue Water." *Strategic Studies*, Vol. 17, No. 3 (1994).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中國人民解放軍的八十年: 1927-2007』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11.
- 金燦榮·趙遠良. "奧巴馬連任後對外政策及中美關係前瞻." 『現代國際關係』2012年 第12期.
- 劉華清. 『劉華清回憶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4.
- 石佳坤. "关于边防信息化体系建设的几点思考." 『国防』第2期 (2016).

- 楊碧川. 『中國人民解放軍』. 臺北: 一橋出版社, 1999.
- 吳仡宇. 『中共新軍事變革』. 臺北: 大屯出版社, 2004.
- 李東嶽. “共軍‘空天一體’戰略發展評估.” 『中共研究』第45卷 12期 (2011).
- 張萬年. 『當代世界軍事與中國國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9.
- 吳心伯. “特朗普執政與美國對華政策的新階段.” 『國際問題研究』2018年 第3期.
- 李亞明. 『中共解放軍概論』. 臺北: 國防大學政治作戰學院出版社, 2016.
- 陳寒溪. “美國‘重返亞洲’對東亞合作的影響.”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國際政治』2013年 1期.
- 韓文琦. “論新中國海軍發展戰略之演化.” 『西安政治學院學報』第3期 (1999).
- 田越英. 『圖解中國國防』. 北京: 人民出版社, 2013.
- 張健志·何玉彬. 『爭奪制天權』.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8.
- 朱成虎. 『新中國成立以來國防和軍隊建設理論與實踐』. 北京: 時事出版社, 2012.
- 中共研究雜誌社. 『2017 中共研究』. 臺北: 中共研究雜誌社, 2017.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北京: 人民出版社, 2013.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北京: 人民出版社, 2015.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新時代的中國國防』. 北京: 人民出版社, 2019.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 北京: 人民出版社, 2017.
- 中共中央黨史研究室. 『中國共產黨歷史大事記』. 北京: 人民出版社, 1989.
- 許和震. 『作戰方式的革命性變化』.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4.

3. 인터넷자료

- Tkacik Jr., John J. “Beijing’s Intentions in Space.” WebMemo #1431, Published by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25, 2007, 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wm1431.cfm (검색일: 2019. 8. 5.).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http://www.defense.gov/qdr/images/QDR_as_of_12Feb10_1000.pdf (검색일: 2019. 5. 31.).
-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 (검색일: 2019. 5. 8.).
- “解放軍海軍陸戰隊擴編7旅10兵陸軍王牌轉型”. <http://news.takungpao.com.hk/mainland/focus/2017-03/3432285.html> (검색일: 2019. 5. 13.).

- “中央軍委關於深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 http://news.xinhuanet.com/mil/2016-01/01/c_1117646695.htm (검색일: 2018. 5. 14.).
- 胡錦濤.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為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2012年11月8日), http://wenku.baidu.com/link?url=ULEW9d-AXd0WYO30rpYSld2PM0GIP-GI5cU_V6ap1p0LkB7EwgmwIGXPslPuWOWLk8nW5Pax4t1X-nv4PYfjPbV8znBnJm7psS2Ovpgriy (검색일: 2019. 8. 19.).
- 習近平. “习近平: 继续朝着中华民族伟大复兴目标奋勇前进.” http://www.gov.cn/ldhd/2012-11/29/content_2278733.htm (검색일: 2019. 8. 20.).

4. 언론자료

- 『세계일보』, 2018. 2. 15.
- 『조선일보』, 2011. 1. 12.
-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3, 2017.
-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3, 2019.
- 『明報』2018년 12월 21일.
- 『人民日報』2016년 1월 2일.
- 『人民日報』2017년 1월 1일.
- 『人民日報』2017년 10월 29일.
- 『新華網』2016년, 1월 1일.
- 『解放軍報』1987년 1월 4일.
- 『解放軍報』2009년 4월 26일.
- 『解放軍報』2012년 12월 13일.
- 『解放軍報』2016년 1월 12일.
- 『解放軍報』2016년 2월 2일.
- 『環救網』2019년 6월 21일.

박병광(朴炳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상하이 푸단(Fudan)대학에서 중국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겸 평가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공군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세계지역학회 3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외국인연구원(1998-1999),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후 연구원(2000-2001),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2004-2005), 대만정치대학 초빙연구위원(2012),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2013) 등을 역임했다.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중국의 정치, 외교, 군사 및 동아시아 안보이다.